소년단

1957. 9

샤 만 호의 격 파　　　　리건영 그림

이 그림은 침략자의 최후를 보여 주고 있다.

1866년 8월 하순에 미국 해적선 샤만호는 우리 나라의 은금 보화를 탐내여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 부근에 침입하였던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그해 9월 2일에 샤만호를 불태워 버렸다.

이렇듯 우리 인민들은 언제나 침략자들에게 멸망을 주었다.

앞표지…개학날……………………………………홍 호렬 그림
뒤표지…아름다운 삼일포…………………………김 창규 촬영

—◇—

동요

9월

벼 이삭은 누런 옷
사과 알은 붉은 옷
새 옷을 갈아 입히며
9월은 찾아 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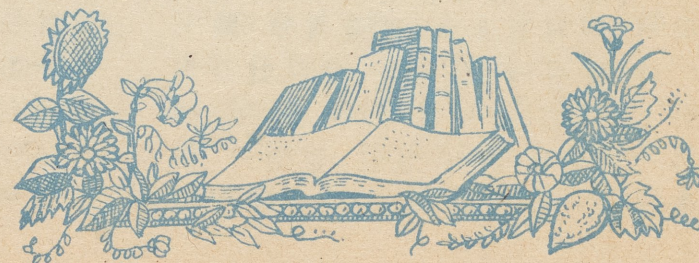
산과 들, 바다에서
야영으로 단련된 몸
9월을 바라보며
씩씩하게 걸어 오네.

즐거웠다. 여름 방학
새 지식을 다진 동무
모두모두 한 맘으로
자신 있게 걸어 오네.

잘 가거라 8월아!
네 품에서 단련된
우리들은 새 맘으로
9월을 맞이하네.

벼 이삭이 여물고
사과 알이 무르 익듯
배우고 또 배워
큰 일'군 되려네.

김 소 향

소년단 1957년 9호 내용

최고 인민 회의 선거 승리 만세!

당과 정부 주위에 굳게 뭉친 조선 인민은 거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조선 인민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최고 인민 회의 선거는 전체 인민들의 애국적 열의 속에 승리적으로 끝났다.

전체 인민들은 이 날을 진정 자기들의 명절로 맞이하였다. 모든 선거장과 거리들은 이른 아침부터 선거자들의 들끓는 기쁨과 감격 속에 휩싸였었다.

수백만 선거자들은 조국의 보다 훌륭한 래일을 위하여 자기들의 손으로 세웠고 피로써 지켜낸 인민 정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모두다 앞을 다투어 선거장으로 나갔으며 자기들이 추대한 후보자들에게 정성껏 투표하였다.

선거에는 전국 215개 선거구에서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9.99%가 투표에 참가하였으며 투표에 참가한 선거자의 99.92%가 대의원 후보자들에게 찬성 투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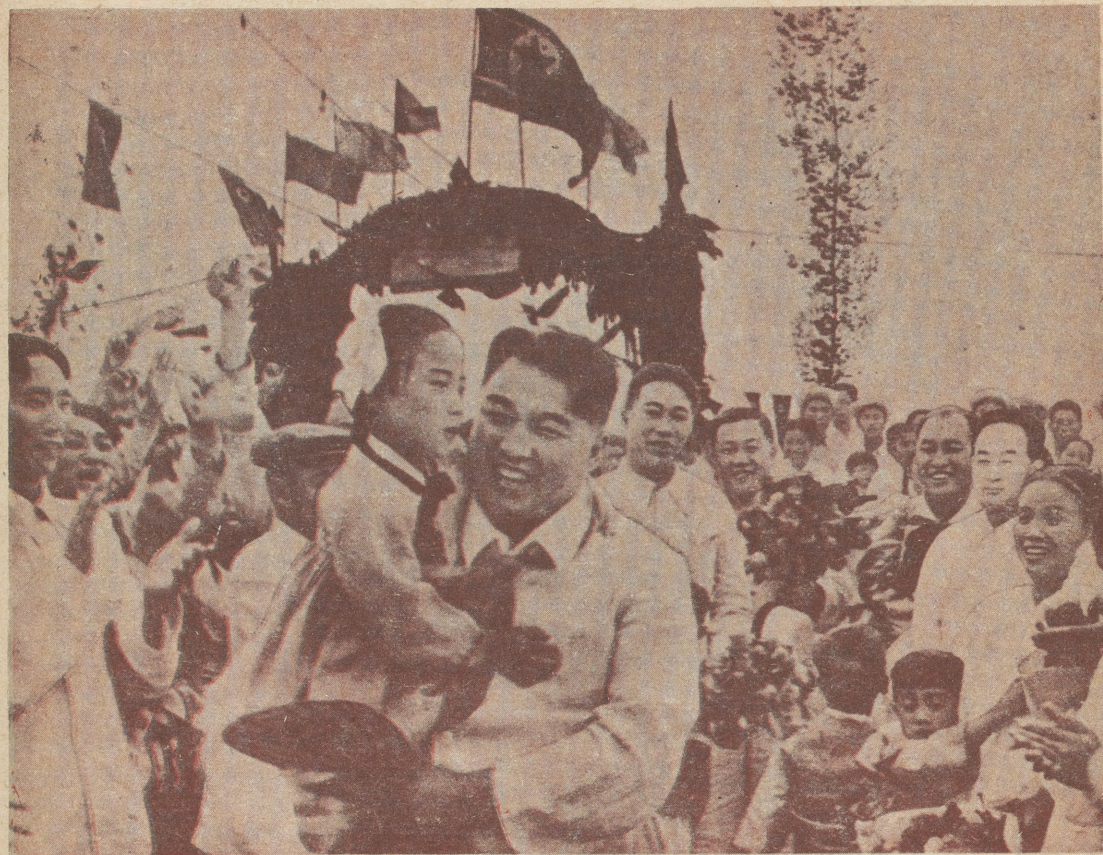
이리하여 김 일성 원수를 비롯한 진정한 애국자들인 215명의 전체 후보자들은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였다.

이 얼마나 자랑찬 승리인가! 이 빛나는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은 오직 해방후 인민 정권이 베풀어 준 행복된 생활을 체험해온 인민들이 인민 정권만이 앞으로도 자손 만대의 번영과 행복을 가져다 줄 정권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체 선거자들은 영광스러운 공화국 공민의 어엿한 자랑을 지니고 진정한 자기의 대표들에게 찬성 투표하였다.

그들의 한 표 한 표에는 인민 정권과 조선 로동당에 대한 두터운 신뢰와 감사의 정이 깃들어 있으며 당과 정부 시책에 대한 열렬한 지지가 표시되여 있다.

이와같이 전체 인민들은 영광스러운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 대한 자기들의 열렬한 지지와 충성을 남김없이 보이였으며 당과 정부 주위에 굳게 뭉친 인민의 힘을 온 세계에 다시 한 번 시위하였다.

실로 인민 정권은 해방후 로동당의 령도 밑에 공화국 북반부에서 밭갈이하는 농민들에게는 토지를,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는 로동과 휴식의 권리를, 녀성들에게는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학생 소년들에게는 넓은 배움의 길을 열어 주는 등 전체 조선 인민들 누구에게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 남포 제련소 로동자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선거장으로 향하시는 김 일성 원수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지도자들◇

안겨 주었다.

이리하여 전쟁 전 평화적 건설의 5년간 전체 인민들은 인민 정권의 따뜻한 시책 하에 행복한 생활을 누려 왔었다. 미제의 침략을 물리치는 지난 3년 간의 조국 해방 전쟁에서 인민들은 자기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준 인민 정권을 지켜 영웅적으로 싸워 이기였다.

이와 같이 평화적 건설에서와 가렬한 전쟁을 통하여 인민 정권 주위에 굳게 뭉친 인민들의 억센 힘은 전후 복구 건설에서도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전후 짧은 기간에 공화국 북반부에는 320여개의 대, 중 공장, 기업소들이 복구 신설되였으며 농촌 경리에서도 전 농호의 85.5%가 협동 조합에 망라되여 우리 나라 농촌은 날로 사회주의로 꽃피여 가고 있다.

이리하여 우리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은 급속히 향상되였다. 1956년 말에 로동자, 사무원들의 임금은 전쟁전 1949년에 비하여 2.3배로 높아졌으며 전후 3년간에 물'가는 약 절반으

로 내려 갔다. 농업 협동 조합원들의 현물 및 화폐 수입도 1956년에는 1955년에 비하여 매 농호당 평균 알곡 분배가 29%, 현금 분배가 70%나 더 많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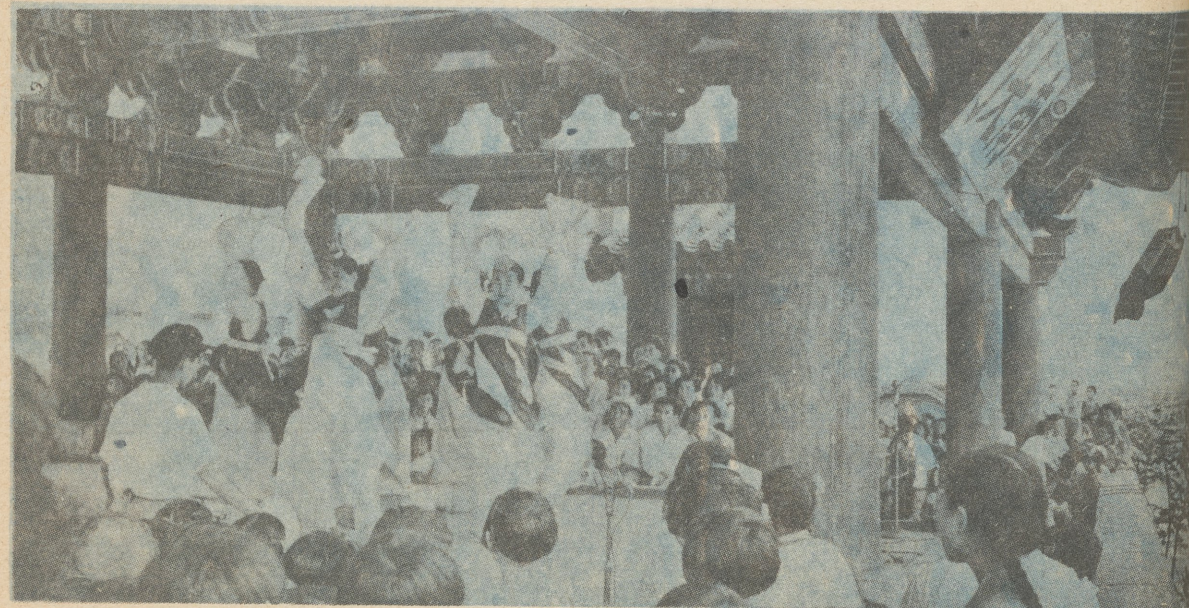
이 빛나는 성과는 오직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옳바른 시책의 결과이며 당과 정부 주위에 굳게 뭉친 인민들의 애국적 열성과 로력의 열매이다.

전체 인민들은 이 번 최고 인민 회의 선거를 경축하여 눈부신 증산 투쟁을 전개하였다.

전체 근로자들은 자기들이 내세운 선거 전 증산 목표를 빛나게 수행하고 승리의 기쁨 속에 선거를 맞이하였다.

최고 인민 회의 선거의 빛나는 승리는 우리의 인민 정권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조선 인민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굳게 하였다.

조선 인민의 단결된 힘을 꺾을 자는 없다. 오늘 우리의 원쑤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이 제 아무리 발악한다 할지라도 놈들은 조선 인민의 단결된 힘 앞에 반드시 패배하고야 말 것이며 조선 인민은 영광스러운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기'발 아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고야 말 것이다.

오늘 최고 인민 회의 선거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전체 인민들은 승리의 기세 드높이 당과 정부 주위에 더욱 굳게 뭉쳐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빛나는 제1차 5개년 계획 수행에 힘차게 나서고 있다.

◇ 개성 시민들은 춤과 노래로 선거 명절을 즐겼다. (남대문에서) ◇

가막봉의 별

강 호영 영웅의 전투기 중에서

눈보라가 사납게 휘몰아 치는 겨울 날 인민 군대 아저씨들은 도망치는 원쑤놈들의 꽁무니에 불을 달구면서 며칠째 쉬임 없는 강행군을 진행하였습니다.

차 승철 중대 아저씨들도 뼈를 쑤시는 듯한 추위와 행군의 피로를 박차고 더욱 힘차게 걸음을 재촉하여 나갔습니다.

중대의 앞장에는 분대장이며 세포 위원장인 강 호영 아저씨가 섰습니다. 강 호영 아저씨는 앓는 몸이였지만 아픔을 꾹 참고 걸었습니다. 도리여 그는 발이 부르튼 부하들의 배낭과 경기관총까지 메고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몸이 평안치 못함을 안 경기관총 사수는 총총 걸음으로 강 호영 아저씨를 따라 잡고 경기관총을 도로 메려고 하였으나 그는 굳이 거절하였습니다.

《걱정 마오, 동무는 경기관총 사수로서 중대에서도 귀중한 몸이오. 우리는 행군 끝에 적과 맞다들게 될 것이요. 그 때에 싸우질 못한다면…… 동무는 그 발로 대렬을 따라 오기만 하면 되오》, 이렇게 그는 부하들을 지극히 사랑하였습니다.

어느 날 행군 대오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따라 오던 맹 리섭 전사는 발이 곪아서 걸음이 떠지게 되였습니다.

이 것을 안 강 호영 아저씨는 발가죽이 들뜨다싶이 곪은 그의 발을 짰으나 고름은 잘 나오질 않았습니다. 강 호영 아저씨는 입으로 맹 리섭 전사의 발에서 고름을 빨아 냈습니다.

그리하여 맹 리섭 아저씨의 발은 점점 나아지고 행군 대오를

따라 갈 수 있게 되였습니다.

어머니보다도 더한 강 호영 아저씨의 부하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항상 군인 아저씨들을 감격케 하였습니다.

이 행군에서 강 호영 아저씨의 완강성과 인내성은 중대 전체 군인 아저씨들을 고무하여 한 사람의 락오자도 없이 원주, 제천, 오미리 계선에 닿았습니다.

인민 군대 아저씨들은 상부의 명령에 의하여 여기에서 방어를 하게 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51년 1월 중순에 강 호영 아저씨가 속한 차 승철 중대는 가막봉을 고수할 전투 임무를 받았습니다.

중대의 임무는 중요하였습니다. 그것은 중대가 부대의 전초선에서 이 고지를 고수함으로써 부대의 다음 전투에 크게 이바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 호영 아저씨는 가막봉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을 맡게 되였습니다.

전투는 가막봉을 차지하자마자 시작되였습니다.

적들은 수십 대의 비행기와 포 그리고 땅크들과 함께 한개 련대를 내몰아 쉬파리 떼처럼 우줄거리면서 고지로 올라 왔습니다.

강 호영 아저씨는 군인 아저씨들의 앞장에 서서 그들을 고무하여 싸웠습니다.

《가막봉을 피로써 지키자!》 하루에도 여러 차례 물밀듯 달려드는 적들에게 혼'살을 먹이여 놈들을 매번 격퇴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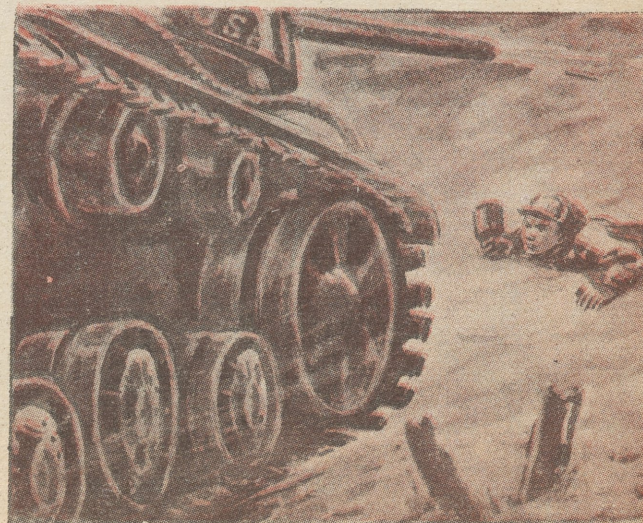
가렬한 전투는 매일 계속되였습니다.

2월 중순에 있은 전투는 더욱 가렬하였습니다.

수차에 거쳐 패배를 당한 원쑤놈들은 이른 새벽부터 비행기로써 가막봉에 나팜탄을 뿌리며 지랄을 부렸습니다. 두리는 순식간에 불 바다가 되여 활활 타 올랐습니다.

불'길은 강 호영 아저씨의 옷에서도 기관단총 총탁에서도 타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황하지 않고 흙으로 불을 끄고 부하들을 살피면서 말하였습니다.

《불'길과 연기 속에서도 적을 감시하오》.

그것은 적들이 지랄을 부린 다음에는 의례히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적 보병들은 땅크를 앞장 세우고 고지를 향해 올라 왔습니다.

적 땅크는 삼'단 같은 불'줄기를 쉴새 없이 내 뿜으면서 가까이까지 다가왔습니다.

강 호영 아저씨는 조금도 덤비지 않고 땅크의 뒤를 따라 오던 적 보병들을 쏘아 눕힐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것은 보병이 없으면 적 땅크는 함정 속에 뛰여 든 메'돼지와 같기 때문이 였습니다.

10여분간에 걸쳐 군인 아저씨들의 맹렬한 사격으로 원쑤놈들은 자기의 땅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망쳐 갔습니다.

적 땅크는 자기 보병들이 도망한 줄도 모르고 계속 우르릉대며 가까이에까지 다가 왔습니다. 강 호영 아저씨는 진지 앞에 있는 움푹한 포탄 구멍으로 4—5M 가량 배밀이하여 나아가서 적 땅크의 무한 궤도를 겨누어 두 개의 반 땅크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순간 《파강!》하는 폭음과 함께 검붉은 불'기둥이 하늘에 솟았습니다. 뒤 따르던 적 땅크들도 겁을 집어 먹고 허둥지둥 도망쳐 갔습니다.

그러나 적들은 또다시 공격해 왔습니다. 강 호영 아저씨의 소대는 며칠 동안의 전투에서 총알이 거의 떨어졌고 적지 않은 군인 아저씨들이 희생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적과 싸울 것을 다지고 있는 긴체 군인 아저씨들은 한 치의 땅도 원쑤놈들에게 내여주지 않았습니다.

전투의 짬을 리용하여 강 호영 아저씨는 전호를 돌아 다니며 부하들을 고무하면서 적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랴! 그가 2분대의 전호에 들어 서려고 할 때 적의 땅크 포탄이 강 호영 아저씨의 바로 옆에 와서 떨어지면서 그의 두 다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끊어진 다리에선 피가 줄줄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마디의 신음 소리도 입밖에 내지 않고 끊어진 두 다리를 끌고 다니면서 원쑤놈들에게 수류탄을 뿌렸습니다.

강 호영 아저씨가 부상 당한 것을 본 몇몇 군인 아저씨들은 그에게로 뛰여 와서 그를 병원으로 후송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강히 거절하였습니다.

《동무들! 나를 이 고지에 남겨 두오, 나를 념려하지 말고 한 놈의 적이라도 더 많이 잡으시

오. 가막봉을 끝까지 사수하라!》

적들은 또 다시 집요하게 달려 들었습니다.

강 호영 아저씨는 다른 군인 아저씨들과 함께 싸우려고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적 땅크 포탄이 날아 들어 강 호영 아저씨의 팔을 빼앗아 갔습니다.

자기의 최후를 잘 알고 있는 그는 전우들에게 자기의 당증을 가슴에서 꺼내게 하였습니다.

당증을 보고 있는 그의 눈동자는 새'별처럼 빛나 올랐습니다. 그는 당증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전우들에게 최후의 부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당에 충실하였다는 것을 당 중앙과 김 일성 장군에게 전해 주오…》그에게는 인민들을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였고 자유와 행복을 안겨 주는 당과 조국이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 한 한 놈의 원쑤라도 더 잡을 결의에 불탔습니다. 《다리가 떨어지면 팔로, 팔이 떨어지면 몸뚱이로 싸우리라…》.

강 호영 아저씨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놈들이 고지 가까이에 왔을 때 안전 못을 뺀 수류탄을 입에 물고 밀려드는 적들의 한 복판으로 굴러 들어가 몸이 그대로 수류탄이 되여 자폭함으로써 원쑤놈들에게 무리 죽음을 주었습니다.

*　　*

강 호영 아저씨는 이와 같이 당의 참된 아들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둘도 없는 젊음을 당과 조국을 위하여 바쳤습니다.

그는 비록 죽었지만 강 호영 아저씨가 남긴 불멸의 위훈은 우리들의 가슴에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고 봉)

그림 남 현주

◇ 조국 해방 전쟁 기념관에 있는 강 호영 영웅의 동상 ◇

지금 생각해도 장한 일이였다

——조 옥희 소년 자위대의 이야기——

벌써 여섯 해 전 일입니다.

동무들처럼 나의 가슴에서도 자랑스러운 붉은 넥타이가 펄럭이던 때니까 지금보다 퍽 어렸을 때지요.

《그런데 어떻게 수십 명의 원쑤놈들을 잡을 수 있었느냐구요》.

물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때 이야기를 하기로 합시다.

*　　*

인민 군대와 중국 인민 지원군에 의하여 우리 마을이 다시 해방된 며칠 후였습니다.

나는 인민 군대에 추천해 달라고 군 민청 위원장 형님을 찾아 갔습니다.

《네 나이에 어떻게…》하고 군 민청 위원장 형님은 저으기 놀라시며 한참 말 없이 나의 얼굴만 쳐다 보셨습니다.

《난 지남산에 갔을 때 빨찌산 아저씨들께서 총 쏘는 법도 배웠어요》 나는 애걸하다싶이 이야기해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응 네 마음을 나도 모르는게 아니야, 아직 너는 공부를 해야지…》 군 민청 위원장 형님은 이렇게 말하고는 잠자코 마는 것이였지요. 집으로 돌아 온 나는 한 밤을 뜬 눈으로 새웠습니다. 나의 곁에 누워 신음하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아팠습니다.

—훌륭한 일'군으로 자라도록 학생들을 가르친 우리 아버지에게 무슨 죄가 있어 미제 원쑤놈들은 갖은 고문을 하고 또 죽이려고까지 했는가, 이 밤에도 놈들은 비행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 않는가.

이러저러한 생각으로 높뛰는 가슴을 억제하려고 나는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눈앞에는 아침마다 어깨 겯고 즐겁게 학교로 가던 일이며 내가 중앙 모범 소년단원이 되였다고 기뻐하던 선생님들과 동무들의 모습이 번갈아 떠 오르는가 하면 이번에는 존경하는 조 옥희 누나를 사형하고 로동당원들과 그의 가족들을 총창으로 찌르고 나무에 달아매는 등 온갖 만행을 다하던 짐승 같은 원쑤놈들이 똑똑히 떠 오르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좀더 크지 못한 것이 안타까왔습니다.

—어떻거나 원쑤를 갚아야 한다. 아버지와 나를 죽이려고 날치며 우리의 사랑하는 학교와 집들을 불 사른 놈들을…

아직 인민 군대에 입대하기에는 어리다면 원쑤놈들이 다시는 고향에 기어 들어 우리의 행복을 짓밟지 못 하도록 부락 자위대 아저씨들과 함께 총을 잡고 고향을 튼튼히 지켜 싸우는 것도 인민 군대 아저씨들을 돕는 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이렇게 결심하며 날이 밝기를 기다려서 군 당 위원장 아저씨를 찾아 가 또 졸라 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끝내 나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군 당 위원장 아저씨는 몇 번이고 조르는 나

에 게《너의 물 같은 마음을 더는 굽히려 하지 않겠다. 그러나 공부를 잊어서는 안된다》하고 나의 손목을 굳게 잡아 주었습니다. 나는 너무도 기뻐 날듯이 뛰여 김복출, 김 익근, 박 수만 등 친한 몇 동무들을 찾아 가 우리도 부락 자위대 아저씨들을 도와 싸울 수 있게 되였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곧 우리는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과 군 민청 위원장 형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벽성 중학교와 송간 인민 학교 열성자 열여섯 명으로 소년 자위대를 조직했습니다. 그 때 벽성 중학교 대 위원장이였던 나는 중대장의 임무를 맡고 대원들을 지도하게 되였습니다.

맵짠 바람이 휘몰아치는 1951년 정월부터 해안 초소에는 나 어린 우리 소년자위대의 경비 초소가 새로 생겼습니다.

서해를 끼고 38선 접경에 놓인 우리 고향에는 여늬 곳과 달라 간첩놈들이 해안으로 또는 비행기로 자주 기여 들군 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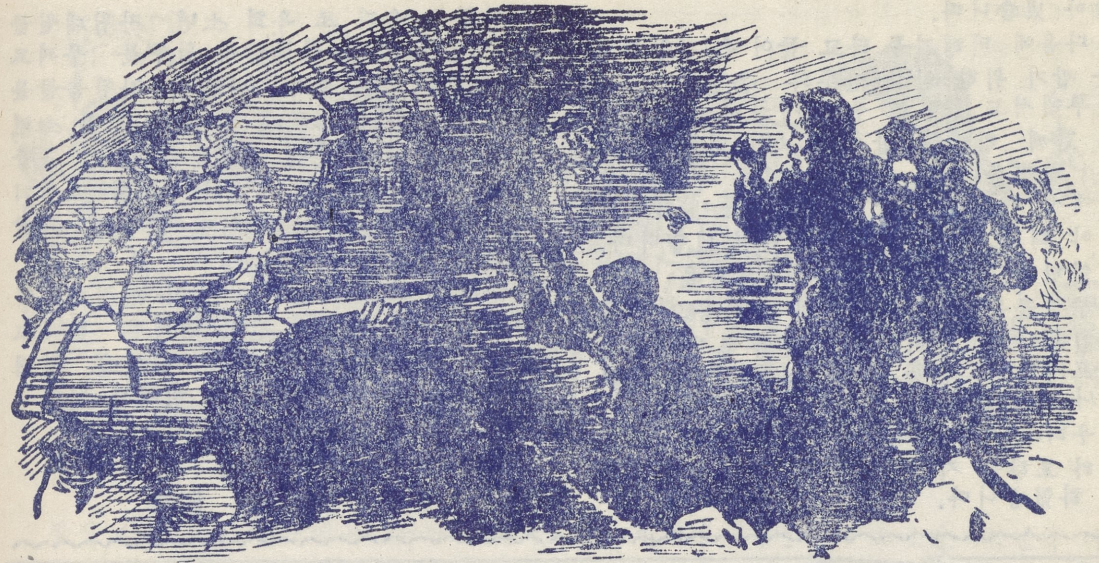
우리는 짬짬이 총 쏘는 법도 배우며 군대에서처럼 규률도 세웠습니다.

달도 별도 없는 캄캄한 어느 날 밤이였습니다. 우리는 바다 물'결을 세차게 휘몰아치며 불어 오는 바람을 안고 여러 곳으로 나뉘여 해안을 지키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별안간 《부적부적》 엷은 얼음을 밟는 조심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우리는 숨을 죽이며 숲 속에 바싹 숨었습니다. 잠시 긴장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때 신작로를 달리던 자동차 불이 바다 쪽을 얼핏 비치며 지나갔습니다. 그 불'빛 속에 바다'가에 배를 대고 기여 오르든 다섯 놈의 그림자가 드러났다가 다시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곧 나는 박 정기 동무를 리 자위대로 련락을 보냈습니다. 또다시 긴장된 순간이 흘렀습니다. 《바싹바싹》 발'자국 소리는 점점 우리에게로 다가 오고 있었습니다.

놈들이 코앞까지 바싹 다가 온 순간 우리는 헛총을 《땅》하고 놓으며 굵은 목소리로 《손 들엇》하고 고함을 쳤습니다. 련달아 여기저기서 함성을 지르며 석유 초롱을 두드리는 등으로 놈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갑자기 봉변을 당한 놈들은 우리를 인민 군대로 알았던지 총을 땅 바닥에 내던지고 어쩔 줄 모르며 손을 번쩍 쳐들었습니다.

첫 전투에서의 승리는 우리를 더욱 용감하게 만들었고 자신심을 갖게 했습니다. 다섯 놈에게서 빼앗은 세 자루의 총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 것은 더욱 기쁜 일이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군 당 위원장 아저씨는 몹시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 때부터 우리 자위대는 공화국의 첫 녀성 영웅인 조옥희 영웅의 이름으로 부르게 되였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줄기찬 투쟁은 계속되였습니다.

우리는 녀자 간첩을 두 놈이나 또 잡았

습니다. 며칠을 두고 우리 마을에 웬 낯선 굴 장사가 다녔습니다. 수수한 무명 옷차림을 한 젊은 안악네가 두리번두리번 집집을 찾아 다니는 모양이 참으로 수상해 보였습니다.

나는 이 수상한 녀인의 뒤를 따르라는 지시를 도로 경비를 선 《비둘기》 초소에 주었습니다. 체포하여 조사해 본 결과 굴 장사는 후퇴 시기에 마을에서도 악질적으로 놀던 몇몇 집을 찾아 다니며 애국자들을 암살할 계획을 꾸미고 있던 녀자 간첩이였습니다.

리 자위대를 도우면서 낮이면 우리는 학습반(폭격이 심한 때이므로 학습반 형태로 공부함) 에서 공부도 하며 소년단 모임에서 영웅 투쟁기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일을 돕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록음이 짙어가는 초 여름이였습니다. 박 수만 동무는 어느 날 지게를 지고 산으로 나무하러 떠나게 되였습니다. 수만 동무는 산 기슭 외딴 집에 이르러 잠간 쉬려다가 부엌에서 만드는 식혜가 유달리 많음을 보았습니다 —웬 식구가 이렇게 많을가, 수만 동무는 호기심을 가지고 우정 맹수를 청하면서 얼른 방문을 열어 보았습니다. 방안에는 수염이 텁수룩한 낯선 두 사나이가 있었는데 갑자기 문을 여는 바람에 그들은 몹시 당황해 했습니다. 수만 동무는 곧 우리 본부에 달려 왔습니다.

우리는 틀림 없이 그 놈들이 수양산에 숨어 있는 반동들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때 우리 마을 근방 산'굴에는 후퇴 시기 미쳐 도망치지 못한 반동놈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둡기를 기다려 우리 열여섯 명은 수양산으로 떠나 우선 산 밑 외딴 집부터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는 늙은 할머니만 있을 뿐 놈들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리 자위대에 알리지 않고 온 것을 후회하며 하는 수 없이 그 로인을 앞 세우고 굴을 찾아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으로 오르던 우리는 밭 가운데서 이상한 돌묻이를 발견했습니다. 찬찬히 살펴 보았더니 돌묻이 가운데에 잔디가 덮여 있질 않겠어요. 틀림 없이 반동들이 숨어 있는 굴이라고 생각한 우리는 돌묻이에 전지'불을 비쳐 대고 총을 몇 방 쏘았습니다. 《꼼짝 말고 한 놈씩 나오너라》. 나의 애된 목소리에도 질겁한 놈들은 큰 바위 틈으로 한 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다섯 놈이나 그 굴 속에서 잡아냈습니다.

우리는 또 이 놈들의 고백에 의하여 이 놈들과 한 패인 몇 놈이 숨어 있다는 장수산 꼭대기를 향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도 오르기 험한 장수산 범굴로 우리는 단숨에 올랐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어린 우리에게 어데서 그런 용기와 힘이 생겼던지 참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범굴에서도 몇 놈을

잡아 냈습니다.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들어 온 간첩놈들을 잡기 위한 압산 전투와 옹진군 고장 전투에서도 우리는 부락 자위대 아저씨들과 함께 캄캄한 밤 중에 50여리의 산'길을 걸었습니다. 이슬에 덮여 축축한 숲속에서 하늘을 이불 삼아 며칠 밤을 새워야 해도 우리는 참고 견디여 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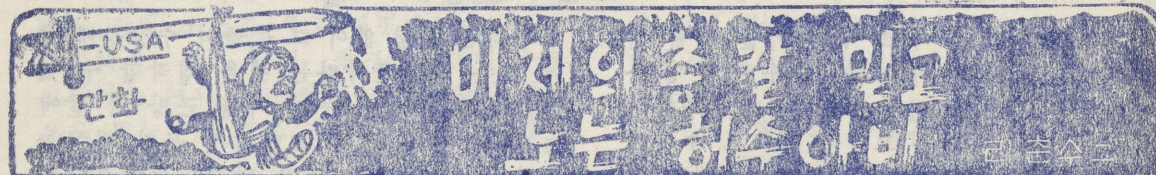
어린 마음에도 사랑하는 고향을 지켜 원쑤놈들을 무찔러야 한다는 마음으로 들끓었으니까요. 이 어려운 전투에서 우리는 슬프게도 박 용흡 동무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만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 슬픔은 곧 복쑤심으로 불타올라 고향을 지키는 싸움에서 더욱 용감하게 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 조 옥희 소년 자위대원들은 영웅 조선의 아들답게 원쑤를 무찌르는 45회의 전투에서 54명의 간첩놈들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 후 중앙 모범 소년단원의 영예를 지닌 우리들은 더욱 훌륭히 자라 지금 어떤 동무는 조국 보위의 초소에서 학원에서 또 어떤 동무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오고 가는 우리들의 편지마다에는 소년단원 시절에 떨친 영예를 빛내도록,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번영을 위해 더욱 더 훌륭히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을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만경대 학원

김 형봉

1. 미국놈의 비행기에 실려 온 리 승만은 미제의 등을 믿고 테로에 날뛰면서 인민 위원회를 해산하였다. (1945년)

3. 공화국 북반부를 삼켜 보려다가 큰 코 다친 매국노와 그의 주인……

2. 인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리 승만은 미제의 총칼의 힘으로 허수아비 정부를 세우고 북진 준비를 일삼았다. (1948년)

4. 《나 죽기 전에 다 가져 가소》하고 매국노 리 승만은 도장을 찍었다. (1956년)

◇ 박 정 렬 ◇

잡지 《소년단》 제2호에는 평남도 온천 제1 중학교 대의 《새해 실습지 계획》이 실린 바 있습니다.

그 후 여러 달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새해 실습지 계획대로 훌륭히 가꾸었으면 자랑도 많을 이 학교를 찾아 가게 되였습니다.

내가 이 학교를 찾아 갔을 때는 방학이였으나 실습지와 동물원 그리고 공작실, 실험실 등 가는 곳마다에서 이곳 소년단원들은 열심히 실험하며, 만들며, 가꾸고 있었습니다.

1,500평의 이 학교 실습지는 퍽 넓어 보였습니다. 소채류와 재배 식물, 과수원 등으로 나누어진 실습지 주변에는 수많은 해바라기가 수집은 듯이 큰 머리를 숙이고 있는가 하면 피마주도 탐스럽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빨갛게 무르익은 도마도, 누렇게 익어가는 호박, 푸른 줄기가 싱싱히 뻗어 나간 고구마, 팔뚝만한 이삭이 달린 키다리 옥수수 등 일일이 세여 나가기가 어려운 가지가지의 농작물들, 어느 하나 탐스럽지 않은 것이란 없었습니다.

강이 풀리고 땅이 녹기 시작하자 밭을 뒤지며 거름을 마련하는 일, 600여평의 황무지를 일쿠는 일 등 모든 일을 소년단원들의 힘으로 해냈던 것입니다.

인민반 3학년부터 초급반 3학년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의 교재에서 이미 배운 지식을 실험해 보며 관찰할 수 있도록 힘에 알맞게 터전을 나누어 더 잘 가꾸기 위한 경쟁이 이른 봄부터 시작되였습니다.

내가 실습지에 갔을 때 옥수수의 인공 수분을 해 주던 한 중오 동무가 《우리 실습지는 참으로 우리들의 훌륭한 자연 교실이예요》하고 자기들의 실습지를 자랑한 것처럼 이들은 실습지에서 실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파종 시기부터 이들은 대 위원회 계획에 의하여 매주 한 시간씩 실습을 하며 분단 위원회의 계획에 의하여 짬짬이 틈을 타서 실습지를 가꾸며 관찰해 왔습니다.

마령서(감자)와 밀 재배에서만 해도 이들은 여러 가지로 관찰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른 봄에 야로비자찌야를 한 것과 안 한 것, 감자 싹이 실한 것과 약한 것 그리고 통감자 등 여러 가지를 심고 가꾸어 왔는데 야로비자찌야 한 것이 열흘이나 더 앞서 자라났으며 또 더 빨리 캐 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잘 썩지 않은 퇴비를 주면 숲만 무성해지고 감자 알이 많이 열리지 못한다는 것과 감자의 꽃은 꺾어 주는 것이 좋

다는 것도 알게 되였습니다.

종자는 통감자를 심는 것이 여늬 것보다 20%의 수확을 더 거둘 수 있었으나 종자 감자가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 수확이 많지 못하다는 것도 알게 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을 밀도 야로비자찌야를 하면 봄에 심고도 초여름에 수확할 수 있다는 것을 실지 실험해 보았습니다.

지난 봄에 평남도 농업 협동 조합 관리일'군 대회에서 수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랭상모가 벼의 다수확 재배법이라는 것을 실습해 보기 위해 랭상모도 실시했습니다.

이 학교에 가면 30평의 논에서 서로 차이가 있게 자라는 벼를 누구나 보게 됩니다.

《이 쪽 벼는 이렇게 잘 되였는데 저 쪽 벼는 퍽 차이가 있구만》 내가 이렇게 물었더니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는 유쾌히 웃으면서 《그러기에 랭상모를 하라는 게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공예 작물과 유지 작물의 다수확 재배법을 배워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과 관찰도 했습니다.

온천군에서는 보기 힘든 아마, 대마도 심고 관찰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마는 다른 식물들과 달라서 종자를 배게 뿌려야만 섬유질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마주는 사방 50cm 깊이 30cm로 판 후 두엄을 많이 주고 심은 것이 퍽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고구마도 흔히 농촌에서 심는 방법과 피라밋트식으로 심어 줄기가 둥글게 뻗어 오르게 하는 법 또 오이처럼 손을 주어 덩굴을 올리는 방법 등 여러 가지로 심어 놓고 수확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향에서 재배하는 주작물의 하나인 옥수수 재배법도 배우기에 훌륭히 힘써 왔습니다. 지난 해에 이들은 백색 마치종과 황색 잡종을 인공 수분해서 새로운 종자를 얻어 근방 협동 조합에 종자로 드린 일도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들은 또 인공 수분을 하여 아주 이삭이 큰 새로운 종자의 옥수수를 얻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가물이 계속되였음으로 네 번 이상씩 김을 매 주고 두 번만 김을 맨 옥수수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이들은 땅을 깊이 갈고 김을 자주 매 주어야만 가물을 어느 정도 이겨 낼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소년단원들이 저마다 자랑하듯이 이들은 여러 가지 식물을 접하는 실험도 했습니다.

줄기가 어릴 때에 감자에다가 도마도를 접하여 한 줄기에서 두 가지 열매를 따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접한 감자 줄기에 열린 도마도는 작은 채로 누렇게 익고 말았으며 감자는 파랗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열매가 맺도록 하는데 성공 못한 이들은 래년에도 계속 이 실험을 해 나갈 계획이였습니다.

또한 이들이 산 기슭 둔덕을 일구고 심은 뚝감자 가운데는 해바라기 꽃이 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와 뚝감자를 접했으니까요.

이 학교에는 함경남도와 량강도, 황해남도에서까지도 소년단원 동무들이 찾아 옵니다. 이곳 동무들의 실습지 가꾸는 경험을 배워 가기 위해서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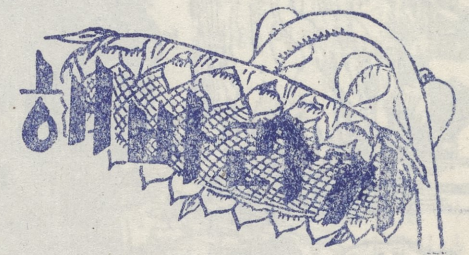
지난 봄에는 량강도 동무들이 오면서 자기 고향의 특산물인 호쁘를 이 학교에 선물로 가져 왔습니다. 이 선물은 이들이 실험 관찰에 아주 귀중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가을 배추와 무우의 파종이 끝났습니다. 봄 배추는 가물을 타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을 배추만은 2kg이상 되는 배추로 키워 내도록 열심히 선진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후회하는 것은 면화 재배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면화 산지라고도 말할 수 있는 고장에서 자라는 이들이 면화 재배법을 연구해 나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였습니다. 그러나 올해에 이들은 파종한 후 가물을 이겨 낼 데 대한 대책을 약하게 세웠기 때문에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것 뿐이 아니랍니다. 과수원 가꾸기에서 이들은 봄에 복숭아, 사과, 포도, 추리 등 40 그루의 나무를 이식하고 꽃이 피기를 기다렸으나 6년생을 심은 25 그루는 그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들은 실과 나무는 되도록 어린 묘목을 옮겨 심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이들은 10만 정보의 과수원을 만들 데 대한 공화국의 전체 민청 형님, 누나들의 힘찬 결의에 발맞추어 래년에는 산기슭에 있는 묵은 땅 200여평을 더 늘궈서 훌륭한 과수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들은 올해의 경험을 살려 보다 부지런히 실습지를 가꾸면서 열심히 실험 관찰을 해 나간다면 더 새롭고 흥미 있는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평남 온천 제1 중학교 대에서

평북 의주 초등 학원 대에서는 《교마 5개년 계획》활동을 여러 가지로 잘 해 나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해바라기, 피마주를 제일 잘 키우고 있다.

그들은 이른 봄부터 4~5회 인분을 주고 정성들여 가꾸어 왔다.

지금 3,249 포기의 해바라기는 모두 꽃피여 익어 간다.

그리하여 학원에 들어서는 정문 량쪽에는 해바라기가 황금의 울타리를 이루고 있다.

지난 6월 15일 대 모임에서는 해바라기 꽃의 직경이 20cm가 되도록 가꾸자고 의논하였었다.

그러나 최 일성 동무네 분단에서는 그 보다 더 크게 직경 27~30cm나 되는 해바라기를 가꾸어냈다.

해바라기는 모두가 무거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그들은 학원을 찾아 오는 손님들에게 이것을 큰 자랑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통신원 김 춘 환

자랑 많은 향토관

◇리 종근◇

함북 어랑 제4 중 학교 향토관 한 복판에는 이 학교 대 소년단원들이 만든 자기들의 고향 어랑의 사판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사판을 중심으로 사방 벽에는 향토 연구 크루쇼크원들이 수집한 어랑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자료들이 미술 크루쇼크원들의 솜씨에 의하여 그림, 도표로 아름답게 전시되여 있으며 또 전설, 민요, 한시 등도 붙어 있다.

사판에는 많은 수'자들이 기록되여 있다. 이 수'자에 따라 벽에 붙인 설명을 보면 조국을 지켜 용감히 싸운 슬기로운 이 곳 인민들의 애국 전통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사판 북쪽 벽에 붙인 수 많은 그림은 어랑 인민들이 두 번에 걸치는 큰 싸움에서 승리한 기록이다.

향토 연구 크루쇼크원들은 이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의 답사와 모임을 가졌다.

벽에는 여섯 장의 그림이 가지런히 붙어 있다.

이 그림들은 1950년 11월, 미제 원쑤들이 어랑에 기여 들었을 때 어랑 인민들이 사랑하는 향토를 지켜 용감히 싸운 이야기를 말해 준다.

첫번째 그림은 불타는 산림 속을 헤치며 아군 진지를 향하여 기여 오는 두 녀성의 그림이다. 이것은 박 순옥 누나와 리 숙 누나의 투쟁 모습을 그린 것이다.

지난 봄 향토 연구 크루쇼크원들은 박 순옥 누나를 향토관에 모시고 모임을 가졌던 것이다. 그 때 들은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렸고 그 자료를 기록하였다.

밀려 들어 오는 원쑤들을 어랑에서 소탕한다는 이야기는 삽시간에 이 곳 인민들에게 알려졌다.

11월 6일 이른 새벽 참모부에는 두 녀성이 찾아 왔다.

《우리는 이 곳에서 사는 민청원들입니다. 이 곳에서 나서 이 곳에서 자란 우리는 이 곳 지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찰대로 싸우게 해 주십시요》.

두 녀성은 이렇게 탄원해 나섰다.

이들은 그 때 봉강리 민청 위원장이였던 박 순옥 누나와 학습회 강사 리 숙 누나였다.

그들의 굳은 결심을 안 정찰부장은 《좋소, 우리 함께 원쑤들을 소탕해 봅시다》라고 하며 두 누나의 손을 굳게 잡아 흔들었다.

피난민으로 가장한 두 누나는 적들이 욱실거리는 명천, 길주 등지로 위험을 무릅쓰고 세 번이나 정찰 나갔다.

수수밭 속에서 밤을 새워 가며 적의 력량도 정찰했고 헌병들을 깜쪽 같이 속여 넘기고 적의 무력 배치도 알아 냈다.

두 누나의 정찰 보고는 인민 군대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리하여 두 누나에게는 공로 메달과 군공 메달 둘씩 수여되였다. (평양에 있는 조국 해방 전쟁 기념관에는 박 순옥 누나의 투쟁이 소개되여 있다).

두번째의 그림은 불 붙는 솔밭 속에서 부상병을 구출하는 어랑 제 2 고중 녀학생들의 투쟁을 보여 준다.

사랑하는 향토에 원쑤들이 기여 들자 어랑 제2 고중 학생 40여명은 간호병으로 탄원해 나섰다.

이들은 담가를 만들고 붕대도 모았다. 불 붙는 산림 속을 뚫고 부상병을 구출했고 비'발치는 탄우 속을 뚫고 탄알 상자와 식사도 운반했다.

가렬한 전투의 며칠이 지났다.

11월 12일, 원쑤놈들은 수많은 비행기를 동원해 가지고 우리 인민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산을 불바다로 만들어 놓았다.

마 소철, 김 귀복, 박 분옥 누나들은 불바다 속에서 부상병들을 업어 날랐다. 박 분옥 누나는 한 전호 속에서 다리를 상한 부상병을 발견했다.

출혈이 심하여 부상병은 정신을 잃고 있었다. 무엇보다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멎도록 지혈시켜야 했다. 누나는 자기 옷 자락을 찢어서 재빨리 상처를 싸맸다.

너울거리는 불'길은 그들을 삼킬 듯이 달려 들었다. 누나는 부상병을 업고 내 뛰였다. 바로 그 때 적의 박격포탄이 그의 앞에 날아 들었다.

《앗》 분옥 누나는 부상병을 업은 채 그 자리에 쓰러졌다. 다시 정신을 가다듬은 누나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불'길 속을 뚫고 나왔다.

마 소철, 김 귀복 누나들이 뛰여 왔을 때 분옥 누나는 《언니 이 부상병을 빨리 …》하고 부상병의 구원을 부탁했다. 분옥 누나의 가슴은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적의 포탄 파편이 오른 쪽 가슴을 뚫고 나갔던 것이다.

이렇게 누나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조국은 박 분옥 누나를 비롯한 7명의 누나들을 표창하여 군공 메달을 수여하였다.

큼직한 마지막 그림은 인민 군대를 도와 후방에서 싸운 이 곳 어머니들의 투쟁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그림이였다.

어랑에서 보름 동안 싸움하는 기간 이 곳 어머니들은 하루에도 수십 가마니나 되는 벼를 발방아로 찧어 쌀을 내고 쌀을 가루로 보아 떡을 지었다.

떡 함지를 인 어머니들은 몸에 물을 끼얹고 타번지는 산 속을 뚫고 전호를 찾아갔다.

전투가 마지막 고비에 이르렀을 때 첫

눈이 산을 덮었다.

어머니들은 흰 치마를 뜯어서 수백 매의 위장을 만들어 인민 군대에게 주었다.

이 때 이 후방 사업을 조직하고 지도한 어머니는 그 때 봉강리 녀맹 위원장이였던 김 후남 어머니다.

이 번 최고 인민 회의 선거에서 대의원으로 선거된 김 후남 어머니는 지난 8월 7일 소년단원들에게 전투 이야기를 들려 준 다음 이렇게 말했다.

《악독한 일제의 발굽 아래에서 해방된 후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품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 온 우리 인민들은 조국이 생명보다 귀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랑 인민들은 조국을 위한 한 뜻으로 인민 군대를 도와 용감히 고향을 지켜 싸운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400년전 이 곳 인민들은 임진 조국 전쟁에서 〈가도 기요마사〉를 괴수로 하는 왜놈 침략군을 이 곳에서 족쳐 부시였다. 그리하여 그 때 인민들은 이 곳을 불러 란을 막았다 하여 어란(禦亂)이라 불렀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지난 조국 해방 전쟁에서 조국을 지켜 용감히 싸운 이 곳을 영웅의 땅이라 부르고 있다.

영광스러운 전통을 지닌 영웅의 땅—어랑에서 자라는 이 학교 소년단원들은 고향 인민들의 슬기로운 애국 전통을 연구하며 선조들처럼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처럼 고향을 사랑하며 조국의 앞날의 훌륭한 일'군으로 열심히 배워 나가고 있다.

그림 남 현 주

영웅 선장을 만나던 날

◇채 규 철◇

길남이가 다니는 신포 제2 인민 학교에서는 신포 수산 사업소에서 해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아 금년 4월에 로력 영웅 칭호를 받은 최 원준 선장을 모시고 오늘 모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영웅 선장은 어떻게 생긴 분일가?

—키는 얼마나 크고 배는 어떻게 몰가?

올해에 졸업반이며 대 위원장인 길남이가 이렇게 생각하며 3학년생인 청자와 정자, 그리고 또 몇몇 아이들과 학교 마당에서 놀고 있을 때 별안간 정문 쪽으로부터 와— 하는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영웅 선장인 최 원준 아저씨가 오신 것이였습니다.

청자는 막 뛰여 가서 영웅 아저씨의 목에 붉은 넥타이를 매여 드립니다. 그러자 뒤미쳐 누군가 금메달이 눈이 부시게 반짝거리는 영웅 아저씨의 널직한 앞가슴에 꽂다발을 안겼습니다.

키가 후리후리하고 좀 길쭉한 얼굴이 불긋불긋하게 해'별에 그슬린 영웅 아저씨는 길남이를 덥석 안아 높이 쳐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얼마 뒤에 그들은 소년단 기'발을 날리며 바다'가로 향해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해'별이 쨍쨍 내리 비칩니다. 바다에서는 푸른 물'결이 잠시도 쉬는 일 없이 철썩거립니다. 그럴 때마다 구슬 같은 물'방울이 바다'가 잔디 우에 날려 옵니다. 그래서 쨍쨍 내려 비치는 해'별에 더욱 아롱진 빛을 뿜으며 튕겨 오를 때마다 바다 우에는 흐르는 무지개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 같습니다.

소년단원들은 모래불에 원을 그리고 뺑 둘러 앉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공화국에서 이름난 최 원준 영웅 선장 아저씨를 이 자리에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되였습니다》.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자 수백명의 소년단원들은 일제히 손뼉을 쳤습니다.

영웅 아저씨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이따금씩 지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청자는 무용복을 만지작거리며 곁에 앉은 정자의 손목을 살그머니 잡고 조금씩 더 앞으로 다가 앉았습니다. 인제는 영웅 아저씨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놈들은 우리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뼈가 빠지게 일을 했지만 임금은 제대루 주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다가 병이 나거나 기계에 치여 죽게 되여도 치료비는 고사하고 병원에 실어다 주지도 않았습니다—》.

영웅 아저씨는 고향이 강원도 문천군 답촌리라는 곳인데 어부였던 아버지는 남의 배에서 고기를 잡아 주고 간신히 살아 나갔습니다. 가난한 아버지는 아들을 공부시키려고 갖은 애를 다 써 보았으나 소년 최 원준은 소학교 3학년 때에

석달치 수업료를 물지 못하여 학교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16세 되는 소년 최원준은 그 때부터 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관선이 늘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왜놈 배'주인들은 기술을 가르쳐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저씨는 원산에 가서 《기관선의 선장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하는 책 한 권을 사왔습니다. 거기에는 항해술에 대한 것과 그물에 대한 기술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글을 잘 모르는 그는 쉽게 내리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놈 선장한테 물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선장놈은 고만 그 책을 앗아 빡빡 찢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조선 사람은 기술을 배울 권리가 없어, 그저 우리가 시키는 일만 하면 돼》.

이때부터 아저씨는 나라가 없는 슬픔 때문에 남몰래 눈물을 흘린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고 왜놈들의 눈을 피해 가면서 기관선을 모는 기술과 그물 뜨는 기술, 고기를 찾아 내는 방법, 바람과 조류에 대한 지식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쏘련 군대는 왜놈들을 몰아 내고 조선 사람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날부터 아저씨는 원산 수산 사업소에서 당당한 공화국의 선장으로 일하게 되였습니다.

《세상에서 나는 제일 악독한 놈들이 왜놈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왜놈들보다 더 흉칙스럽고 악착한 놈들은 바로 미국 강도놈들입니다》.

선장 아저씨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맑고 빛나는 눈에서는 불꽃처럼 번쩍이는 빛이 튕겼습니다.

《나는 조선 인민을 노예로 만들고 우리 땅을 송두리채 집어 먹으려는 미국 날강도놈들을 가만 둘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놈들이 폭격해도 우리들은 고기를 잡아서 전선과 후방 인민들에게 보냈습니다. 고기 잡이도 미국놈과의 싸움이였습니다…》.

영웅 아저씨는 전쟁 기간에도 굴하지 않고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적들의 비행기는 끊임 없이 폭탄을 퍼부었고 함포에서는 포탄이 비오듯 날아 왔습니다. 그러나 최 원준 선장의 손에서 키 (배의 운전기)를 앗아 내지는 못했습니다.

정전이 되자 영웅 아저씨는 신포로 이동되였습니다. 신포 부두는 폭격에 허물어 지고 선박들은 침몰되여 있었습니다. 그는 선원들의 앞장에서 침몰된 배를 끌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에 필요한 와이야며 기중기 같은 것이 없었지만 그는 부근 공장에 돌아 다니며 와이야도 얻어 오고 기중기도 빌어다 남 먼저 저예망선을 끌어 올렸습니다. 영웅 아저씨는 끌어 올린 배로 명태를 잡아 6백여 만원의 리익을 국가에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개년 인민 경제 계획 기간에 한 틀의 그물 사고도 내지 않고 생산 계획을 153•4%로 실행하면서 30여 명의 선원들을 훌륭하게 키워 냈습니다. 그리고 파도를 용감하게 헤치는 방법을 연구해 냈습니다.

《사나운 파도는 선원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때가 있습니다…》.

모여 앉은 소년단원들의 얼굴에는 긴장한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청자는 이야기하는 영웅 아저씨를 찬찬히 바라보는 길남이를 건너다 보았습니다. 길남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두 어깨는 눈에 띌만치 들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배가 명태를 가뜩 싣고 돌아 오던 겨울 어느 날이였습니다…》.

영웅 아저씨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높이 울립니다. 영웅 아저씨는 잠시 바다에 시선을 돌리고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날 39호 저예망선은 뜻하지 않은 풍파를 만났습니다. 부두까지는 20마일이나 더 가야 하는 먼 거리였습니다. 파도는 호되게 배'전을 때리며 물'방울을 배칸에 들씌워 놓았습니다. 겨울 밤은 칼날처럼 매웠고 물'방울은 떨어지자 마자 하얗게 얼어 버렸습니다. 사방은 검은 장막에 덮여 아무런 것도 알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나운 바람 소리는 차차 더 스산해져 가고 길길이 뛰는 파도는 덜미를 움켜 잡으려는 듯이 배'전을 때렸습니다. 어떤 선원들은 고기를 도로 바다에 퍼내 버리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웅 아저씨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고귀한 로력을 들여 잡은 고기를 어떻게 버린단 말인가! 얼마나 많은 기름을 써 가며 잡은 고기이며 얼마나 애써 잡은 고기인가! 그리고 부두에서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 앞에 어떻게 빈 배를 몰고 들어간단 말인가!

《나는 그때 부두를 떠나면서 약속을 했었습니다. 단단히 약속을 했었습니다》.

영웅 아저씨는 약속이라는 말에 힘을 주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던지 만선을 해 가지고 돌아 오겠다구요…》.

청자는 이때 길남의 무릎 우에 놓인 손이 별안간 불끈 쥐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끈 쥐여진 손을 보는 사이 청자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길남인 뭘 생각하구 있나 봐—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때 영웅 아저씨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런데 파도는 여간 사납지 않았습니다…》.

배'전에 찰랑찰랑 물'결이 넘어 들기 시작하여 선원들은 전지'불을 휘두르며 다른 배의 구원을 청해 보았지만 어디에나 불빛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은 휴계실 우에 뛰여 오르기도 하고 더러는 돛대를 붓잡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영웅 아저씨는 사나운 파도를 내다보며 키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키를 놓을 수는 없다! 키는 생명과 같다. 파도를 이겨야 한다. 선원들을 구해야 하고 고기를 살려야 한다….

이렇게 결심한 영웅 아저씨의 머리에 펀뜻 그 어떤 생각이 떠 올랐습니다. 그는 이런 파도를 헤치기 위해서 오래 연구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 이런 때야 말로 연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좋은 때가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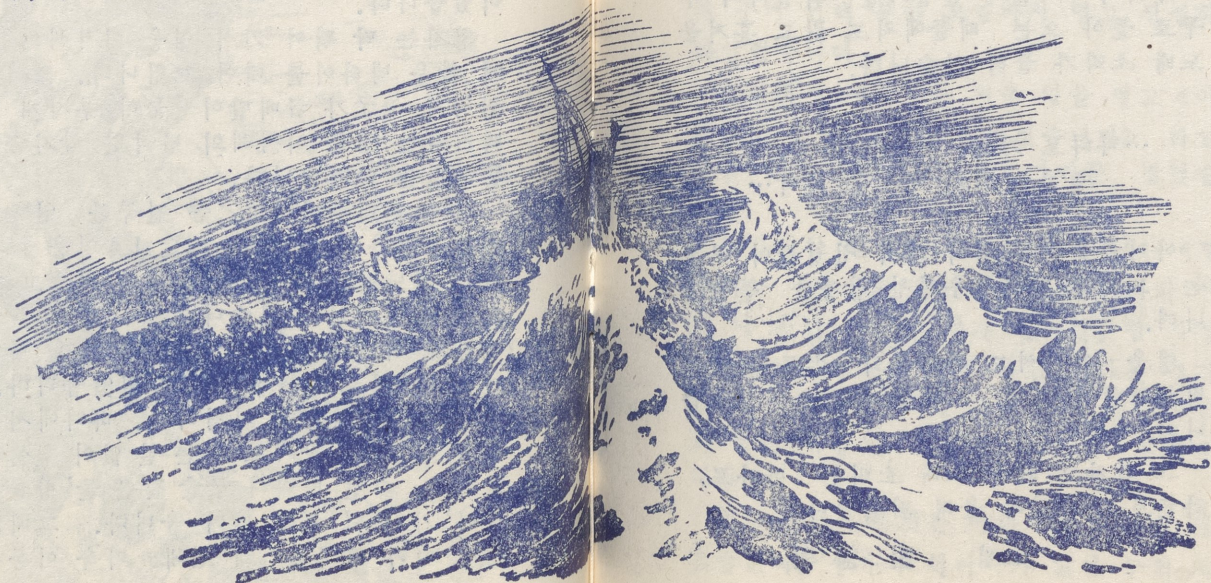
영웅 아저씨는 슬쩍 키를 한 옆으로 돌리며 담벽같이 밀려 오는 파도를 한 옆으로 피해 보았습니다. 배는 산 같은 파도 우에 둥실 높이 떴다가 절벽에 떨어지듯 허양 내려 꽂히긴 하였으나 거연히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는 이마의 땀을 씻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러자 곁에 섰던 부선장과 여러 선원들이 후— 길게 숨을 내여 쉬며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배는 파도를 타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파도와 정면으로 부디쳐선 안됩니다. 그리구 빈 배와 짐 실은 배를 똑 같은 방법으로 몰아선 안됩니다…》.

영웅 아저씨는 소년들을 죽 둘러 보았습니다.

《이게 바루 제가 연구해 낸 좌우 11도

각 조종법이라는 겁니다…》.

모여 앉은 소년들의 얼굴에서는 그제야 긴장되였던 빛이 사라지고 빙그레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박수 소리가 여기 저기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웅 아저씨의 이야기가 끝나자 길남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동무들! 나는 장차 선장이 되겠습니다. 조선의 바다에는 맛 있는 물'고기가 많습니다. 나는 이 물'고기를 잡아 인민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영웅 아저씨처럼 용감히 싸우겠습니다. 나는 영웅 아저씨가 약속을 실천한 것처럼 지금 결의한 말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소년이 일어나 영웅 아저씨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의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청자는 그 목소리를 잘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때 청자는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남이처럼 나두 약속할게 있단다—

청자는 영웅 아저씨 앞에서 영웅 아저씨가 손벽을 치도록 훌륭하게 춤출 것을 속으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 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난 공부 잘 해서 가공 기사가 될테야!》

청자는 자리에서 우쭐 일어났습니다.

청자의 목소리는 맑고 쨍쨍 울리였습니다.

《동무들! 나는 앞으로 수산 전문 학교에 들어가서 가공 기술을 배우겠습니다. 잡아 온 고기를 가공 잘 해야 선원 아저씨들이 애쓴 보람이 있잖아요! 난 훌륭한 가공 기술자가 될테예요. 그래서 고기를 맛 있게 가공할테예요…》.

청자의 말이 끝나자 우렁찬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모여 앉은 소년들은 모두 청자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나도 너처럼 가공 기사가 될테야—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웅 아저씨는 청자를 덥석 쳐들어 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 때 음악 써클에서 경연 대회 때마다 재청을 받는 영규라는 아이가 하모니카를 꺼내 불였습니다.

하모니카 소리는 노래 소리와 어울리여 바다로 하늘로 멀리멀리 퍼져 나가는데 청자와 정자와 또 몇몇 아이들은 나비처럼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바다 우에서는 줄기찬 기적 소리가 울려 왔습니다.

공화국 기'발과 만선기를 휘날리며 부두로 돌아 오는 배들에서도 맑고 흥겨운 노래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바다로 가세, 바다로 가세.
조국을 위해 파도를 차며…

아이들은 신바람이 나서 선원들이 부르는 노래에 맞춰 우렁찬 합창을 불렀습니다.

영웅 아저씨도 아이들의 손목을 잡고 벙글벙글 웃으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힘차고 맑은 노래 소리는 바다로, 하늘로 멀리멀리 울려 퍼졌습니다.

그림 림 영환

한자리에 모여서

중앙 석암 소년단원 야영소에서

이번 여름 방학에 석암 야영소에 첫 야영 기'발을 올린 동무들은 지난 날 자기들의 사업 경험을 나누기 위해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좌담회에는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 량강도 각 지방의 우수한 열성자들과 중국 초등 학원에서 공부하는 열성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아래에 몇 동무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현 호운 (함북 영안 제1 중학교 대 8분단 위원장) 우리 분단에는 리 경섭이라는 동무가 있습니다.

이 동무는 분단의 일을 언제나 말 없이 꾸준하게 해 온 동무였습니다.

그런데 한때 그는 방과후 작업에 빽소나칠 궁리만 하구 자주 늦게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분단 열성자들은 경섭이를 조용히 만나는 때마다 잘 타일러 주었습니다. 그래도 경섭이는 규률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분단에서는 경섭 동무의 나쁜 점을 고쳐 주기 위해 분단 모임까지 열고 친절히 타일렀습니다.

모임에서 경섭이는 겨우 입을 열고 《이제부터는 규률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한 마디를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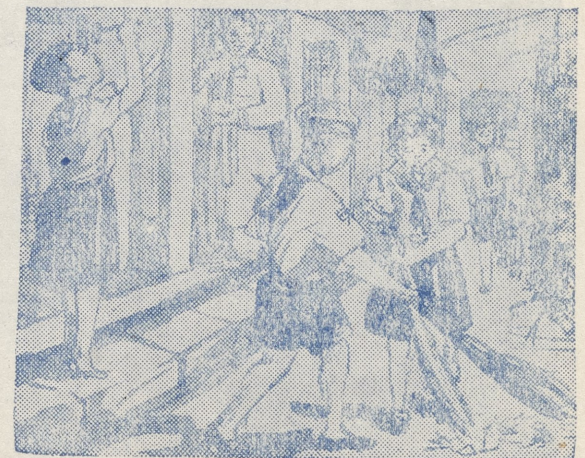
경섭이의 얼굴을 한참 바라본 나는 《경섭이는 아버지도 안 계시니 (조국 해방 전쟁 때 인민 군대에 나가 전사함) 집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 되였습니다. 그래 나는 열성자들과 함께 경섭이네 집에 가 보게 되였습니다.

정말 경섭이에게는 딱한 집 사정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앓아 누워 계셨습니다. 경섭이는 어린 동생을 돌보며 집' 일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경섭이가 며칠째 아침마다 지각하고 방과후이면 빨리 집에 돌아 갈 생각만 하게 된 것은 이 때문이였습니다.

이 날 우리 열성자들은 물도 길어 주고 나무도 날라 주고 뜨락도 쓸고 경섭이가 하는 일을 도와 주었습니다.

이튿 날 나는 전체 분단 동무들에게 경섭이네 집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윤 관중 동무가 먼저 일어나 경섭이네 집'일도 도와 주고 숙부가 선물로 사다 준 연필과 공책도 나누어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전체 동무들은 자기들도 경섭이네 집' 일을 도와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분단에서는 경섭이의 어머니 병이 나을 때까지 교대로 집'일을 도와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무도 50 여단이나 해서 마당에 가려 주고 페품 회수로 모아진 돈으로 6•6절날 경섭이의 샤쯔와 넥타이를 사다 주었습니다.

곧 병이 나은 경섭이 어머니는 일부러 우리를 찾아 오셔서 얼마나 치하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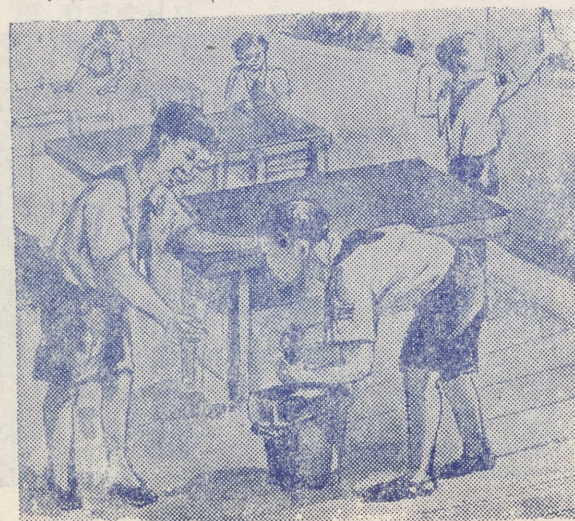
이런 일이 있은 후는 경섭이 뿐만 아니라 전체 분단 동무들이 그 전과는 달리 자기들에게 생긴 일을 곧 열성자들에게 이야기하며 열성자들을 따랐습니다.

때문에 우리 열성자들은 소년단원들의 요구를 제때에 알 수 있었고 사업도 잘 조직할 수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일도 선생님이 해 주려니 하던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의 힘으로 분단 사업을 해 낼 수 있다는 자신을 갖게 되였습니다.

신 춘관 (홍남 1중 학교 대 열성자) 호운 동무의 이야기는 우리 열성자들이 본받아야 될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분단 사업에 모든 동무들이 열성있게 참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열성자들이 항상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렵니다.

우리 학교 8분단 동무들 가운데는 전체

분단 동무들 앞에 맡겨진 일을 자기에게는 상관 없다는 듯이 잘 하지 않으려는 동무들이 있었습니다.

분단 열성자들은 이런 동무들을 어떻게 고쳐 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번 의논했습니다. 그래 열성자들이 모든 일에 앞장서서 분단 동무들이 열성자들을 따르도록 하자고 하였습니다.

열성자들은 아침 청소에서부터 모범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장난만 하고 청소할 념도 하지 않는 동무들의 책상을 먼저 깨끗이 닦아 주었습니다. 이럴 때면 그 동무들도 가만 있을 수 없어 뒤따라 청소하군 했습니다.

그 후부터 아침 청소는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기 시작하면 뒤따라 자각적으로 하게 되였습니다.

실습지 가꾸는 일에서도 숙제를 해오는 데도 열성자들은 언제나 분단 동무들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분단은 열성자들을 따라 모든 사업이 잘 될 뿐만 아니라 규률을 잘 지키는 분단으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열성자들을 애태우던 백 영자, 리 춘자 동무들도 지금은 분단의 일을 잘 하는 동무들로 되였습니다.

박 미자 (함흥 7중 학교 대 위원장)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 대 5분단 열성자 동무들은 서로 삐죽거리면서 싸우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성자들이 싸우니까 분단 동무들도 싸우는 일을 보통으로 생각하게 되여 규률이 얼마나 나빴는지 모릅니다.

오 봉호 (량강도 보천 5중 학교 대 위원장)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까?

박 미자 지금은 싸우지 않습니다. 인민학교 때부터 학업 성적을 경쟁해 오던 분단 위원장 백 명자 동무와 3반 반장 강 채연 동무가 주로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 우리 대 위원회에서는 그들에게 학습을 전체

동무들이 다 잘 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남의 잘 하는 것을 질투하는 경쟁이 되여선 안 된다고 타일렀습니다. 또한 열성자들이 싸우는 일은 분단 사업을 락후하게 만든다고 여러번 타일렀습니다.

특히 분단 위원장 명자를 주로 타일렀습니다. 그 후 채연이가 병으로 앓는다는 소식을 들은 우리 대 열성자들은 명자가 채연이를 방문하도록 조직해 주었습니다. 병이 나아서 학교에 나온 채연이는 명자와 친히 지냈습니다. 지금은 화목하게 사업이 잘 되여 나가고 있습니다.

김 인철 (량강도 보천 3중 학교 대 위원장) 우리 열성자들은 정말 모범이 돼야 합니다.

내가 겪어 본 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마을 앞에는 개울이 흐릅니다. 마을에서 개울을 건너 학교에 다니는 동무는 50명에 가깝습니다.

금년 어느 봄 날이였습니다. 밤새 비가 내리더니 개울 물이 많이 불었습니다. 얼음이 동동 떠 다니는 찬 물인데다가 물도 어지간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50여명의 동무들은 학교 시간이 늦어지는데도 그저 개울'가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때 나는 1학년생을 업어 개울을 건너 주었습니다.

뒤따라 열성자들과 큰 학생들이 모두 나서서 어린 동생들을 업어 건넜습니다. 개울 물에 들어서길 두려워하던 동무들도 그 뒤를 이어 씩씩히 개울을 건너왔습니다. 이 날 우리 마을 동무들은 한 명도 지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 나는 열성자들이 자기 임무를 다 하려면 언제나 동무들의 앞장에 서야 하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피마 5개년 계획》 활동으로 우리 학교에 과수원을 만들 때에도 우리 열성자들은 선두에서 모범을 보이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 주변에는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앵두나무. 배나무들이 싱싱 자라고 있으며 다래, 머루, 포도 넝쿨이 무성하게 뻗어서 보기에도 참 좋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과일 나무를 많이 심을 계획입니다. 3년 후에는 참 맛 있는 과일들을 따 먹게 될 것입니다. 그때 동무들이 유서 깊은 우리 고향 보천보로 온다면 실컷 과일을 대접하겠습니다. (모두 웃음)

이 밖에도 함북 무산 1중 학교 대 위원장 리 기호 동무는 도서실에 3,000권의 도서를 마련하던 열성자들의 사업 경험을 재미 있게 이야기하였고 또한 함남 신창군 신창 1중 학교 대 열성자 리 영찬 동무의 자기들의 힘으로 꾸민 공작실에서 자기들이 만든 도구를 가지고 자기들의 손재주로 공작품을 만들어 탁아소 어린이들에게 선물했다는 이야기며 가지가지 재미 있는 경험들이 많이 이야기되였습니다.

동무들은 이런 좋은 경험들을 본받아 자기 학교 소년단 생활을 반드시 더 잘 꾸려 나갈 것을 서로 약속했습니다.

영화 소개 아르쫌까의 모험

주인공 아르쫌까

쏘련 천연색 아동 예술 영화 《아르쫌까의 모험》은 로씨야에서 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던 시기——고아로 천대를 받아 오던 구두 깁기 소년 아르쫌까가 어떻게 혁명가들을 돕게 되였으며 어린 마음 속에 혁명의 의식이 싹 트게 되였는가를 흥미 있게 보여 주고 있다.

1912년 어느 날 해안의 작은 도시 부두'가에 들어 온 돛배 《크라쓰뜨까》호에 혁명을 위한 선동 삐라를 만들어 내는 지하 인쇄소가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하였다. 짜리 경관놈들도 눈이 뻘개서 이 비밀 인쇄소를 찾아 내려고 하나 이 배에는 관심도 두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아르쫌까는 많은 아이들을 대상해서 혼자 싸우고 있다.

이 배에서 내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배'사람으로 차리고 도시에 삐라를 뿌리려 오는 젊은 혁명 투사 뽀뽀브 아저씨도 있었으며 곡마단에 취직하려 오는 흑인 레스링 선수 뻽쓰 아저씨도 있었다.

배에서 내려 거리를 걷고 있던 흑인 뻽쓰 아저씨는 어느 골목 길에서 한 패거리의 아이들과 혼자서 싸우고 있는 소년 아르쫌까를 구원해 준다.

아르쫌까는 뻽쓰 아저씨와 친하게 되였다

이때로부터 부모도 없이 구두 깁기를 해서 겨우 살아 가는 열세 살 난 아르쫌까와 뻽쓰와는 친해진다. 먹고 살아 가기 위해 곡마단에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자기보다 실력이 낮은 백인 선수에게 지는 체 해야만 되는 흑인 뻽쓰도 아르쫌까에게 못지 않은 억울한 신세를 지니고 있었다.

아르쫌까는 곡마단 구경을 자주 하면서 말타기 소녀 랴샤와도 친하게 된다.

애들은 강아지를 안고 아르쫌까를 찾아 왔다

어느 날 아르쫌까의 구두'방에는 장마당에서 삐라를 뿌리다가 경관에게 띄워 막 피해 온 혁명 투사 뽀뽀브 아저씨가 들어오게 된다. 아르쫌까는 곧 뽀뽀브 아저씨가 좋은 일을 하는 훌륭한 이라는 것을 알아 채고 삐라를 인차 감추어 준 후 아저씨가 무사하도록 경관을 속여 넘긴다.

혁명가들은 《아쓰뜨레브》호에 활자를 감추고 있다.

이리하여 아르쫌까는 뽀뽀브 아저씨와도 친해지고 그의 영향을 받게 된다. 뽀뽀브 아저씨와 그의 동지들은 지하 인쇄소에서 쓸 활자를 구해다가 빈 배인 《아쓰뜨레브》호에 감쪽같이 감추어 두고 기회를 보아서 《크라스뜨까》호로 옮기려 하였다. 아르쫌까와 장난꾸러기인 그의 동무들은 이 배에서 숨박꼭질을 하다가 이 활자를 발견하고 몇 개 훔쳐다 장난하게 된다.

《야! 멋있구나. 글자가 새겨 진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활자를 본 형사놈들은 아이 들을 얼리면서 활자가 있는 곳을 알아 내려고 애쓴다. 아르쫌까는 다만 자기들의 장난'감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뻽쓰 아저씨의 도움을 얻어 경관들 몰래 활자가 들어 있는 무거운 상자를 산'골짜기 바위 틈에 감추어 놓게 된다. 아르쫌까의 이 우연한 행동은 곧 혁명 투사 아저씨들을 크게 돕는 일로 되였다.

경관은 물었다 《애 그활자를 어데서 얻었니 응?》

그 후 아르쫌까는 뽀뽀브 아저씨에게서 얻은 삐라를 식당에서 떨궈 그만 실수를 하게 된다. 그 삐라 때문에 경관의 추격을 받게 된 뻽쓰 아저씨와 뽀뽀브 아저씨, 그리고 아르쫌까는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그리하여 《크라쓰뜨까》호는 아르쫌까와 랴샤 그리고 혁명 투사들을 싣고 푸른 파도를 헤치며 새 희망의 언덕을 향하여 내달린다.

10월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혁명가들은 새 희망의 언덕을 향하여!

(전국 아동 작품 및 교편물 전람회 출품 동화극 1등 당선)

동화극

꼬마곰이 만든 라지오

◇ 안주 제3 중학교 2학년 1반　윤　창　운◇

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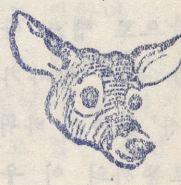
곳—꼬마곰네 집 실내

등장인물

꼬마곰

다람쥐

토끼

사슴

노루

—◇　◇—

무대：실내 가운데는 자그마한 탁자가 놓여 있다. 그 우에는 라지오와 마치, 뻰치, 송곳, 쇠줄 등이 너저분하게 널려져 있다. 오른편으로는 출입문과 창문이 있다.

창문 밖으로는 울창한 산림이 보인다.

왼편으로는 옆방으로 통하는 문이 있다.

막이 열리면 꼬마 곰이 혼자 의자에 앉아 탁자에 몸을 기대고 자고 있다. 이윽고 기지개를 하면서 일어 난다.

꼬마곰—(혼자' 말로) 얼마나 잤나? 이건 야단 났는데, 암만 해도 못 만들겠단 말이야. 이런 줄 알았으면 매일 꾸준히 만들어 볼 걸, 부랴부랴 만들기 시작했으니 될게 뭐야. (라지오를 이리저리 두드려도 보고 스위치를 돌려도 본다).

꼬마곰—(혼자' 말로) 점심 때면 동무들이 와서 내가 만든 라지오를 듣기로 했는데, 이건 참 야단 났군, 그래도 내가 요전에 라지오를 멋지게 만들었다고 자랑까지 했는데, (스위치를 돌리며) 에끼놈의 라지오 아무 소리나 좀 나 주렴!

다람쥐—꼬마곰아 뭘해? 오늘도 함께 뒤'산으로 놀려 가줘 응?

꼬마곰—요놈 꼬맹이 가만 있어! 방해하지 말어!

다람쥐—찌! 여니 땐 잘 뛰놀고 쿨쿨 잠만 자더니 오늘은 무슨 일이야, 뭘해 응?

꼬마곰—라지오를 못 만들어서 그래, 소리가 나지 않는단 말이야.

다람쥐—라죠? 그건 뭘하는 게야? 그건 만들어서 뭘 하나?

꼬마곰—이번에 우리 학교 동무들이 서로 무엇이든 만들 내기를 했어. 토끼도 라지오를 만든단다. 그런데 오늘 점심 때 동무들이 내가 만든 라지오를 들으려 온단 말이야. 이젠 밥 먹을 때 됐지?

다람쥐—응.

꼬마곰—(히죽이 웃으며) 아, 좋은 수 있다. 다람쥐야 너 내 말 좀 들어 주지 응?

다람쥐—뭐게?

꼬마곰—좋은 수가 있는데 말이야 (탁자 밑을 가리키며) 너 여기 좀 들어 가봐.

다람쥐—어디 말이야?

꼬마곰—여기 말이야, 여기 이렇게 말이야. (탁자 밑에 들어 가는 시늉을 한다).

다람쥐—거게 들어 가면 뭘 하나?

꼬마곰—좋은 수가 있다니까 그래, 빨리 들어 가봐!

다람쥐—싫다 얘, 뭘하러 그런데 들어 가겠니?

꼬마곰—얘 그러지 말고 빨리 들어가 봐 (달래며) 내 저녁에 밥 삶은 거 좀 줄게 응?

다람쥐—밥?

꼬마곰—응!

다람쥐—그럼 진짜 주어야 해. (탁자 밑으로 들어 간다)

꼬마곰—얘 다람쥐야!

다람쥐—응!

꼬마곰—내가 말이야 탁자를 세번 톡톡 치면 노래 부르란 말이야, 알았지? 자 그럼 해 보자 응? (스위치를 돌리며 탁자를 톡톡 친다)

다람쥐—………

꼬마곰—얘, 가만 있으면 어찌 하니? 세번 치면 노래하란 말이야, 자 그럼 다시 해 보자. (탁자를 톡톡 친다)

다람쥐—(큰 소리로) 노래하란?

꼬마곰—참 한심한데 《노래하란》하는 라지오가 어데 있니? 아무 말 말고 그저 노래만 부르란 말이야, 알았지? 그럼 다시 해 보자 다람쥐야.

다람쥐—응

꼬마곰—자 그럼 알지 (탁자를 톡톡 친다)

다람쥐— (노래한다)

진달래꽃 피였네
붉게 붉게 피였죠.
협동 조합 마을에
붉게 붉게 피였죠.

꼬마곰—(좋아서) 하하하…멋이 있는 진짜 라지오군, 하하……자 노래 소리를 좀 높여 볼가 (스위치를 돌린다).

다람쥐—(노래 소리 높인다)

진달래꽃 피였네
붉게 붉게 피였죠.
소년단원 맘 속에
붉게 붉게 피였죠.

꼬마곰—(좋아서 손벽을 치며)됐어 됐어, 인젠 됐어. 그리고 말이야 낮추라면 노래 소리를 낮추어야 해 알았지?

다람쥐—(탁자 밑에서) 응!

△ 이때 《꼬마곰 있어!》하면서 오른편으로 토끼, 사슴, 노루 등장.

토끼—꼬마곰아 라지오를 멋지게 만들었다지…들으러 왔어.

사슴—(라지오를 가리키며) 이건가, 만든게?

꼬마곰—응

노루—빨리 좀 들어 보자 얘.

꼬마곰—(히죽이 웃으며) 뭐 잘 만들진 못했어.

토끼—참 꼬마곰이 달라졌는데, 매일 놀기만 하고 낮잠만 자더니…

사슴—우리 몰래 힘써 만든게야.

노루—그런게야.

사슴—(꼬마곰 보고) 토끼가 만든 라지오는 썩 잘 나온단다. 이자 우리 토끼네 집에 들렸다 오는 길이야.

노루—토끼는 언제나 열심히 공부하니까 그것도 잘 만들었지.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던 (사슴을 보며) 그렇지 응.

사슴—그럼 참 멋이 있어.

토끼—(꼬마곰 보고)자 그럼 좀 들어 보자 응? (라지오 가까이 가며) 내가 좀 들어 볼가?

꼬마곰—(당황해서) 아니 괜찮아, 내가 트니까 (스위치를 돌리며) 자 그럼 들어 보지 (탁자를 톡톡 친다)

다람쥐—(탁자 밑에서 노래 부른다)

우리 우리 아기는
크거들랑 말이죠.
공장 기계 돌리는
로동자가 되지요.

사슴—야! 멋이 있구나!

노루—잘 나오는데.

꼬마곰—(의기 양양해서 스위치를 돌리며) 좀 더 크게 해 볼가.

다람쥐—(노래 소리 높인다)

우리 우리 아기는
크거들랑 말이죠.
협동 조합 마을의
모범 농민 되지요.

노루—잘 만들었다 얘.

사슴—꼬마곰아, 넌 참 재주가 용하구나.

노루—토끼야 잘 들리지?

토끼—(머리만 까우뚱한다)

꼬마곰(스위치를 돌리며) 노래 소리가 너무 크군, 좀 작게 해야지.

다람쥐—(노래 소리 낮춘다)

우리 우리 아기는
크거들랑 말이죠,
우리 나라 지키는
인민 군대 되지요.

사슴—(꼬마곰에게) 너 참 이거 만들기에 수고 많이 했겠구나.

노루—참 수고했겠어.

사슴—그렇지! 노력하면 안되는 일이 없어, 꾸준하게 노력하면 아무 일이나 다 돼.

노루—자 그럼, 우리 옆방에 들어 가서 좀 쉬면서 토끼랑 꼬마곰한테서 라지오를 만든 이야기나 들어 보는게 어때?

사슴—응 좋아!

△ 모두 왼편으로 퇴장.

다람쥐—(탁자 밑에서 나오면서) 씨 저희들 끼리만 들어 가는데?…난 집에 가서 밥이나 먹고 올테야.

△ 다람쥐 오른 편으로 퇴장.

△ 사이—왼편으로부터 토끼랑 모두 등장.

사슴—참 꼬마곰이 수해 애썼구만.

노루—그렇게까지 열심히 한 줄을 몰랐는데.

사슴—자 그럼 우리 한 번만 더 들어 보고 가자.

노루—응 그래그래 한 번만 더 들어 보자.

꼬마곰—(흡족해서) 그럼 한 번 더 들어 볼가? (스위치를 돌리며 탁자를 톡톡 친다)

사슴—(잠시 있다가) 어떻게 소리가 안 나오느만?

노루—뭐이 잘못 됐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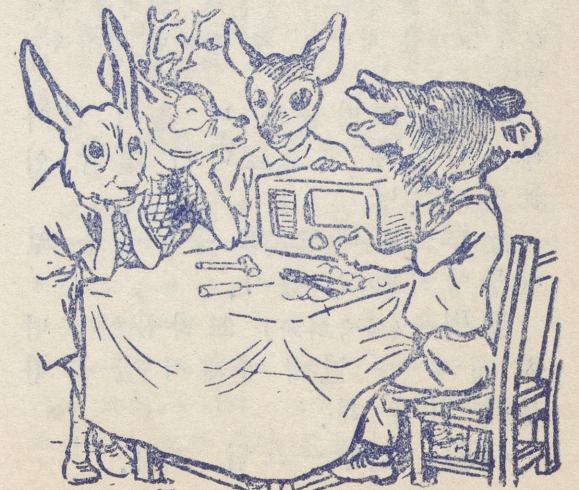
꼬마곰—(당황해 하면서) 어떻게 된 셈이야 (탁자를 톡톡 치며)고장 생겼나? (스위치를 돌려 보며 아스도 흔들어 보며 한다)

사슴—아니 고장이 생겼나?

노루—빨리 고쳐 보지.

꼬마곰—(탁자 밑으로 발을 넣으며) 노래 불러! 노래! 이게 어떻게 된 셈이야 고장이야! 고장!

△ 이때 《꼬마곰 있어!》 하면서 오른편으로 다람쥐 등장.

다람쥐—(탁자 밑으로 들어 가려고 하며) 나 이자 밥 먹으러 갔댔어, 이 속에 들어 가서 라죠할테야.

노래하면 저녁에 밥 삶은거 주지 응?

꼬마곰—(어쩌할 바를 모른다)

사슴—(놀래며) 이건 뭐야!

노루—이건 무슨 놀음이야. 오라 그렇구나.

사슴—오라 그렇군 그래.

△토끼, 사슴, 노루《하하…》소리를 크게 내고 웃는다. 꼬마곰 어찌할 바를 모른다.

노루—꼬마곰 넌 참 한심한데

토끼—난 아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다람쥐—(탁자 밑으로 들어 가려고 하며) 꼬마곰아 나 라쵸되니까 밥 삶아서 꼭 줘 응!

△모두 또《하—》웃는다. 꼬마곰 무안해서 고개를 떨구고 손'가락만 만지작거린다.

사슴—꼬마곰아 너 옳지 않아 얘, 언제나 게으르더니 결국 이 꼴이로구나

노루—그래도 또 동무들을 얼렁뚱땅하려고 했지.

토끼—(엄숙하게) 꼬마곰아 넌 좀 제가 한 일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 봐야 해.

사슴, 노루—그럼 그래.

토끼—어떤 일이나 꾸준히 노력해야만 되는거야,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란 없거든. 공부는 항상 꾸준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

사슴—그렇구 말구, 꼬마곰아 너 같이 그렇게 매일 놀고만 있으니 일이 안 되는건 마땅한 일이야.

토끼—넌 요전에 2점을 맞지 않았니 공부를 좀 해야 해.

꼬마곰—(머리를 숙이고) 알았어!

토끼—그리고 말이야, 동무들을 속이는 것도 좋지 못해. 언제나 동무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해. 그리고 다람쥐와 같이 어린 동무를 피여서는 안 돼. 알았어?

꼬마곰—응 알았어! 내가 잘못 했어. 여지껏 난 너무 게으르고 공부도 잘 안 했어… 나는 이젠 열심히 공부할테야. 매일 꾸준히 할테야 그리고 토끼랑 너희들과 같이 좋은 성적을 얻고 나도 훌륭한 라지오를 만들어 낼테야! (막)

복병하고 있는 세 동무

◇ 게 • 나쟈꼬브 ◇

우크라이나 쉐뻬또브까시의 한 공원에 동상이 서 있습니다. 대 우에는 군대 외투를 입고 허리띠에 수류탄을 찬 어린이가 서 있습니다. 동상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씌여져 있습니다.

《위대한 조국 전쟁 시기의 어린 빨찌산 웨. 아. 꼬찌끄는 1930년 2월 11일에 탄생하여 1944년 2월 17일에 서거하다》.

이 동상은 어린 삐오네르—영웅인 왈랴 꼬찌크의 동상입니다. 그는 조국 전쟁 시기 독일 파시스트들이 자기 고향 도시로 쳐들어 왔을 때 빨찌산들을 도와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용감하고 령리한 왈랴는 히틀러 도당이 강점한 구역에서 분해한 기관총을 운반하고 수집한 탄약과 수류탄을 교외에 있는 숲 속에 가져다 감춰 놓을 것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는 빨찌산에서 맡은 이 어려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그것을 빨찌산 부대에까지 가져 갔습니다. 도시를 해방하는 전투에서 빨찌산 왈랴 꼬찌크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습니다. 전사한 다음 그에게는 조국 전쟁 훈장 제1급이 수여되였습니다.

* * *

……길섭 관목 숲 속에 숨어 있는 왈리끄와 스쩨빠는 왈랴 꼬찌크가 거닐고 있는 쪽을 유심히 바라 보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은 미리 이런 약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적 병사들이 나타나는 때에는 왈랴 꼬찌크가 한 손을 쳐들고 또 군수품을 실은 자동차가 지나가거나 기타 어떤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에는 두 손을 쳐들기로 하였습니다.

오후 두시반쯤까지 어린이들은《전리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좀 늙스구레한 한 농민이 쉐뻬또브까로 뛰여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나무를 가득 실은 큰 트럭이 떠나 왔습니다.

《제길 저 놈이라도 파괴해 버리자》하고 왈리크가 말했습니다. 그는 가만히 오래 동안 엎드려 있기가 싫증이 났습니다.

《자, 봐라 봐!》하고 스쩨빠가 속삭였습니다.

쉐뻬또브까에서 나오는 행길 우에는 병사들이 가득 탄 두 대의 트럭과 함께 하이야가 달려 오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은 관목 숲을 헤집고 뚫어지게 앞을 내다 보았습니다. 자동차는 점점 가까이 다가 옵니다. 그러자 자동차는 왈랴 꼬찌크의 옆을 지나 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허리를 쭉 펴고 일어서 두번이나 량 손을 쳐들어 힘껏 흔들었습니다. 왈리크와 스쩨빠는 이 것을 보고 재빨리 수류탄 끈을 뽑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의 고동 소리까지 들려 오는 듯 했습니다. 자동차들은 점점 가까이 다가 옵니다. 이미 자동차 우에 탄 놈들의 얼굴까지 알아 볼 수 있게 되였습니다. 하이야 안에는 세 명의 장교가 앉아 있었습니다.

《개자식!》.

왈리크는 소리를 지르고 나서 줄곧 앞으로 내달렸습니다. 쓰쩨빠도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들어 맞혀야겠는데, 꼭 들어 맞혀야겠는데!》하고 왈리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파시스트 대위인 프리쯔 케닉은 자동차 속력을 좀 늦췄습니다. 그는 달려 온 아스팔트 길을 주의 깊이 살펴 보았습니다. 자동차의 모터 소리가 고르럽게 부르렁거립니다. 속력계의 바늘은 90킬로메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저기엔……》.

케닉도 제딴에는 빨찌산들을 모두 진압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는 행길로 두 소년이 뛰여 나오더니 무엇을 흔들다가 도로 숲 속에 뛰여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삐걱하더니 꽝! 꽝 하고 폭발 소리가 련이어 두번 나고 눈 앞에 누런 먼지가 기둥처럼 솟아 올라 앞이 뽀얗게 가리워져 버렸습니다. 갈팡질팡하던 자동차는 겁에 질려 그만 길 옆에 거꾸로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피에 젖은 장교놈의 군모가 도랑에 날아 들어 갔습니다. 뒤따르던 트럭은 브레끼 소리와 함께 하이야를 맞쫓고 말았습니다. 사격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왈랴 끄쩌크가 자동총을 발사했던 것입니다. 독일병들은 자동차에서 뛰여 내려 마구 되는 대로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자동총의 련발은 관목 숲을 매 쎈치마다 누볐습니다. 사격 소리는 도시의 한 쪽 구석에서도 들려 왔습니다. 놈들은 몹시 당황하여 자기 편을 적으로 알고 맞불질을 했던 것입니다.

이윽고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부대가 독일군을 습격했다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지방 소년들이 독일놈을 습격했다고들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영웅들은 그러는 동안에 행길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숲 속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뿔레쎈 마을로 들어 와서 거기서 고기 사냥'군으로 가장하고 반대 방향으로부터 시내로 천천히 들어 왔습니다.

5년을 하루와 같이

《내가 5년간 최우등한 것은 공부를 잘 하여서만이 아니라 5년간 하루의 결석도 없이 학교를 다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느 해 하루 지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산수 시간이였는데 몇 분간 지각한 탓으로 선생님의 설명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 날 집에 돌아 와서 나는 선생님의 설명을 듣지 못한 문제를 푸느라고 여러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 다른 과목은 끝내 복습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부터 나는 지각이나 결석이 참으로 공부에 큰 지장을 준다는 것을 깨닫고 무엇보다 지각 결석을 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금년 함북 영안 제1 중학교에 입학한 김 경자 동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년 속후 소년단원 중앙 야영소에 갔을 때도 경자는 많은 동무들 앞에서 자기가 최우등한 것은 하루의 결석도 없이 학교에 나온 보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경자는 인민 학교에서와 같이 3년간 하루의 결석도 지각도 없이 꼭 최우등할 것을 마음 다지고 있습니다.

리다 마뜨웨예바의 공훈

◇ 아 • 두브롭쓰끼 ◇

리다가 손님으로 와 있던 모쓰크바 근방의 이와노브 마을이 파시스트 놈들에게 강점되였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빨찌산을 돕게 되였습니다.

어느 날이였습니다. 이 마을로 정찰대인 우리의 땅크 두 대가 들어 왔습니다. 히틀러 도당들은 그를 발견하고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다는 몇 놈의 파시스트들이 수류탄을 들고 땅크로 기여 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땅크병은 이런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웅뎅이에 숨어 있던 소녀는 벌떡 일어나서 땅크를 향해 힘껏 달려 갔습니다.

《당신을 포위합니다!》하고 그는 소리쳤습니다. 《저 쪽으로 가십시요! 빨리! 빨리!》.

리다는 아직 파시스트들이 나타나지 않은 쪽을 가리키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땅크들은 곧 빙그르르 방향을 돌려서 마을에서 떠나 갔습니다.

파시스트 놈들은 리다를 체포해 가지고 큰 보리수 나무에로 끌고 갔습니다. 나무 가지에는 올가미가 내려 드리워 있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와 왔습니다. 그러나 조국을 사랑하는 리다는 조금도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놈들과 더 싸우지 못하고 죽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파시스트들은 소녀의 목에 올가미를 씌웠습니다.

발더더개를 걸어 차는 소리와 함께 리다는 교수대에 매달리우고 말았습니다.

이와노브 마을 중심에는 대리석 탑이 서 있습니다. 흰 돌에는 리다의 초상화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탑 둘레에는 지금 마을 사람들이 리다의 이름을 지닌 공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 원필 역)

이상한 세 사람

(1957년 4월 6일 저녁)

림 영 환 그림

1. 인민반 4학년에 다니는 박 동하 동무가 혼자 교문을 나오는데 학교 뒤의 숲 속에서 어떤 세 사람이 허둥지둥 걸어 나오고 있었다.

2. 그들은 길을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것 같았다. 《어디서 오셨나요?》 하는 동하의 물음에 한 사람은 원산에서 왔다고 대답했다. 얼마 있다가 다른 한 사람은 빼스 정거장을 가리키며 빼스가 어디로 다니느냐고 묻는 것이였다.

3. 《원산에서 왔다는 사람이 왜 원산으로 다니는 빼스 길을 모를가? 더구나 이 곳엔 신작로가 하나 밖에 없는데…》 동하에게는 이상하게 생각되였다. 그들이 숲을 헤치고 나오던 것도 이상한 일이였다.

마침 그들은 물을 마시고 쉬여서 가자고 수근거리더니 동하에게 물을 길어다 달라고 부탁했다.

4. 동하는 그들의 부탁을 들어 주었다. 동하는 물뜨러 가던 길에 기영이를 만났다. 기영이에게 눈짓으로 자위대에 빨리 알리라고 일러 주었다.

(전국 아동 작품 및 교편물 전람회 출품 《작문》 가작)

작문 나의 만년필

평양 사범 부속 인민 학교 3 학년 박 춘자

나의 만년필은 쏘련에 계시는 우리 삼촌이 나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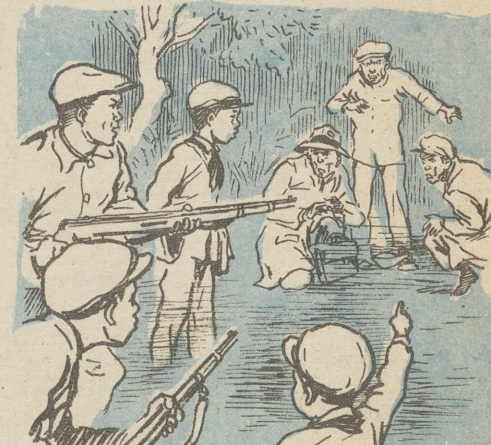
나는 우리 삼촌에게 편지를 할 때마다 만년필을 보내 달라고 하였답니다.

어느날 삼촌은 나에게 만년필과 공책, 연필을 보내 주었습니다. 공책과 연필도 좋았지만 만년필은 더 좋았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삼촌이 나에게 공부를 잘 하라고 선물까지 보내 주었는데 나는 삼촌한테 못지 않게 공부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지금 나는 이 만년필을 가지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있으며 6•1절을 맞이하여 개성시 고려 인민 학교 소년들에게 편지했고, 쏘련 삐오네르 동무들에게 편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문도 이 만년필로 쓴 것입니다.

5. 물을 떠 가지고 온 동하는 그들이 자리를 떠날가바 걱정하면서 기영이가 자위대 형님들을 빨리 데리고 왔으면 하고 마음 조리며 기다렸다.

6. 때를 놓치지 않고 기영이는 자위대원 주 광엽, 리 히재 형님을 데리고 왔다.

그 후 내무서에서 그들을 조사한 결과 간첩이라는 것이 알려졌다.

강원도 고성 제6 중학교 대에서

정정: 《소년단》 8호 표지 4면 설명의 박 락용은 백 락용임

불쌍한 남반부 소년들을 힘껏 돕자

요즈음 편집부에는 공화국 각지 소년들로부터 《불쌍한 남반부 소년들을 돕자》는 힘찬 목소리가 담긴 통신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보내 온 통신들에는 남반부 소년들의 불행한 생활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 불행은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결 같이 쓰고 있다.

나이가 차서도 학교에 못 가는 90여 만의 소년들, 헐벗고 굶주리는 50만의 학교 어린이들, 부모 잃고 길'거리를 헤매는 20여만의 전재 고아 등 불행한 남반부 소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남반부에서 미제를 물러 가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황남 연안 고급 중학교 대 리 정명 동무는 지난 날 인천 서림 국민 학교에 다닐 때 미국놈들한테 학교를 빼앗기고 판자'집에서 공부하다 그 것마저 월사금을 못 내여 쫓겨나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인천에 있는 자기 동무들이 깡통을 차고 쓰레기통을 찾아 다닐 것을 생각하니 막 눈물이 쏟아진다고 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의 행복한 생활을 편지로 알려 주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8월 1일 평북 구장군 야영소에서는 《불행한 남반부 소년들을 힘껏 돕자!》라는 제목으로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구장 제5 중학교 김 춘자 동무는 미제놈들에게 학살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나의 아버지를 죽인 미국놈들이 바로 남반부에서 우리 형제를 죽이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에서 트럭에 매달렸다고 어린 소년을 총으로 쏘아 죽인 놈이 바로 그 놈들입니다. 인천시 휘발유 송유관 옆에서 세상 모르고 놀고 있는 세 살 난 김 영호라는 어린이를 휘발유 도적이라고 쏘아 죽인 놈이 그 놈들입니다. 세 살 난 아이가 어떻게 송유관에서 휘발유를 훔치겠습니까! 미제는 당장 물러 가라!》고 웨쳤다.

원쑤들에 대한 증오심에 불타는 소년들은 목소리를 합하여 《미제는 물러 가라!》고 소리 높이 웨치였다.

함남 영흥 제6 중학교 대 모임에서는 약초 채집을 하여 남반부 소년들을 원호하겠다고 결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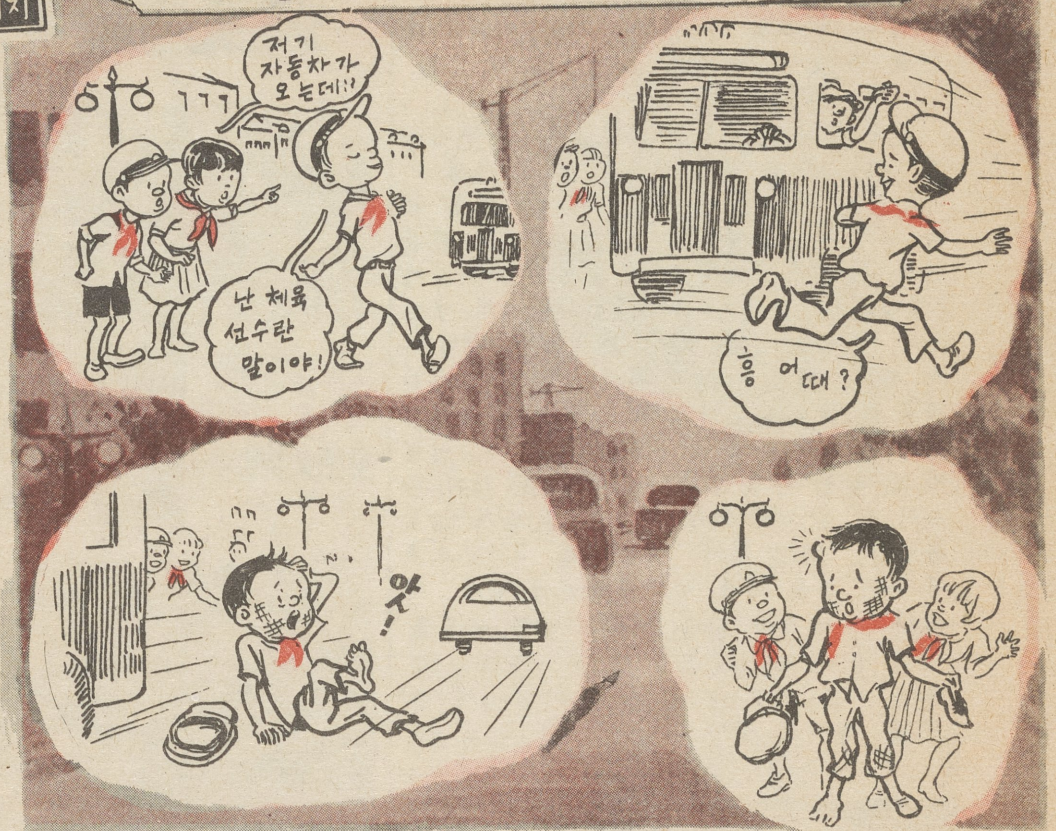
황북 신계 4중 학교 대에서, 자강도 야영소에서, 량강도 초등 학원에서 보내온 통신들에도 남반부 소년들을 원호하겠다고 결의하고 있다.

《미제는 물러 가라!》, 《헐벗고 굶주려 헤매는 남반부 소년들을 원호하자!》.

이 목소리는 공화국 북반부의 소년들 속에서 더욱 우렁차게 울려 나오고 있다.

◇ 배움터를 빼앗긴 아이들(남반부) ◇ 김 옥례 그림

◇ 갈망(남반부에서) ◇ 리 지원 그림

재봉 베개모

이 베개'모는 아주 작은 천 쪼각으로 만들 수 있다. 비단천 쪼각이면 더 좋다.

바느질 법

판은 광목 또는 아무 헝겊이나 두꺼우면 된다. 우선 판을 만들기 위해 사방 15 Cm 되는 헝겊 우에 직경 11Cm가 되는 원을 그린다. 다음에는 그림(ㄱ)와 같이 비단천을 사방 3.5Cm정도로 베서(ㄴ)와 같이 3각형으로 접는다. 다시(ㄷ)와 같이 접고 두번 접어서(ㄹ)와 같이 뾰족하게 각이 나게 한다. 이것을 판에 붙이기 위해 뾰족한 각을 원 밖으로 향하게 하고 원 안으로 붙여 간다. 실은 튼튼한 것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한 줄을 다 붙인 후 다음 줄에는 각과 각 사이 에 놓이게 하고 안으로 좀 당겨 놓고 붙인다. 점점 원이 작아지면 3각형으로 접은 천 밑을 베서 작게 만들어야 한다. 이리하여 마지막 끝에 가서는 명주 색실을 여러 곱 접어서 중심을 맨 후 가위로 량 끝을 베고 곱게 다스려서 화판 중심에 붙이면 웅예와 같이 보인다. (허 성복)

공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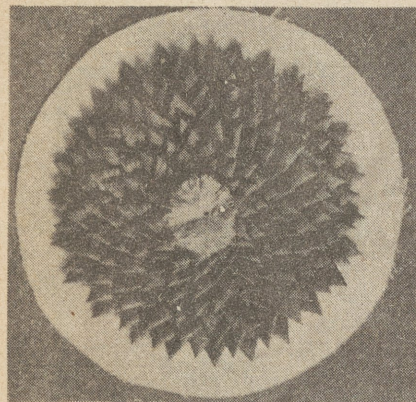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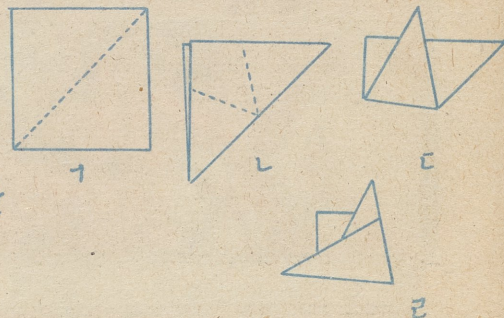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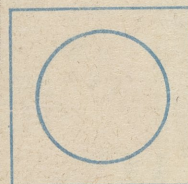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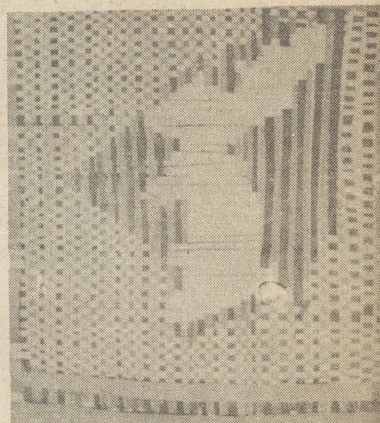
만들어 보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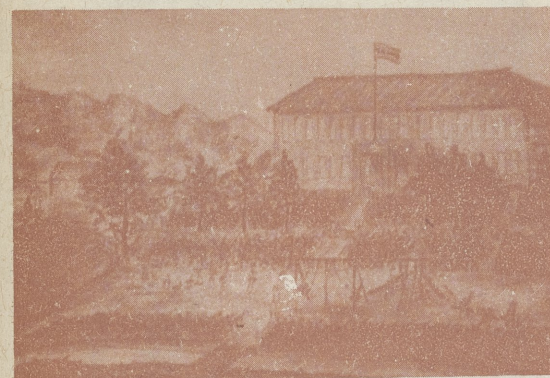
색종이공작

나무잎공작

편집 위원 김 주현(주필) 김 칠성 리 원우 리 동무 송 정우 신 진균 최 윤호

1957년 9월 10일 인쇄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1957년 9월 15일 발행 《소년단》 1957년 제 9 호 (총96호)
발행소 민 주 청 년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40600 값 25 원 80,000부 발행

우리 나라 어린이들의 재간 있는 솜씨

전국 아동 작품 및 교편물 전람회에서

《우리 학교》 1등
개성 사전 부속 인민 학교
5학년 장 주현

《독서》 2등
평양 제 7 중학교
2학년 김 익선

《협동 조합의 벌》 2등
개성 동현 중학교 인민반
2학년 홍 순애

《다섯 동무》 3등
평남 남포 제 9 인민 학교
2학년 로 영순

《붉은 넥타이를 매고》 2등
함흥 제 1 고중 초급반
2학년 박 순자

《개승만》 3등
평양 제 7 중학교 2학년 림 병국